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part 1.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개

1. 센터 개요	06
2. 주요 기능	07
3. 피해 지원 및 협력체계도	08
4. 피해 지원 절차	09

part 2. 피해 및 지원 현황

1. 총평	12
2. 지원 피해자 현황	14
가. 인입 시기별 현황	
나. 최초 상담 경로별 현황	
다. 성별·연령별 현황	
라. 피해영상물 확보 여부에 따른 지원유형별 현황	
마. 피해영상물 인지 경로별 현황	
바. 합성·편집 현황	
사.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현황	
· 전년 대비 현황	
· 성별 현황	
· 연령별 현황	
3. 피해유형별 피해 발생 현황	28
가. 전년 대비 현황	
나. 성별 현황	
다. 연령별 현황	
4. 지원 현황	34
가. 피해 지원 현황	
나. 삭제지원 세부 현황	
·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	
·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현황	
· 신상정보 삭제지원 현황	
다. 피해영상물 유형 현황	
5. 해외 사이트 대응 현황	46
가. 서버 국가별 수집 사이트(도메인) 수 현황	
나. 국제협력 삭제지원 현황	
다. 불법성증명공문 삭제지원 현황	

1. 피해 지원 우수사례	50
• 디지털성범죄 상담창구 1366 일원화를 통한 피해 연계 및 지원 사례	
• 중앙-지역 디성센터 집단피해 긴급 대응 사례	
• 대규모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지원 협업 사례	
•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신상정보 삭제지원' 추진 현황 및 성과	
•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강화 성과	
2.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58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60
4. 통계자료	62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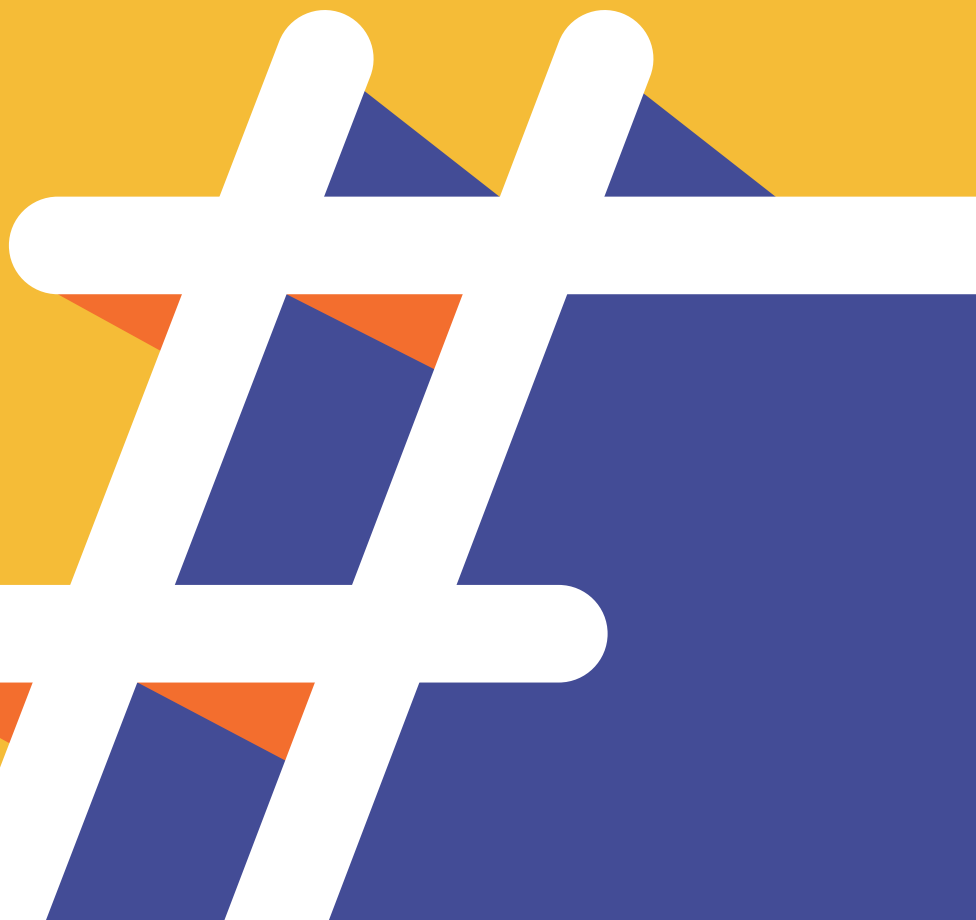
1.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수록된 지원 실적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수사 기관 신고(고소) 또는 법정 유죄판결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가해자’, ‘피해 내용’, ‘피해영상물’ 등의 용어는 법적 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하 보고서에서는 법 규정 표기를 제외하고 ‘피해영상물’로 표기**
3.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의 자료 인용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6),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 ☒ 항목별 세부 통계 작성 기준은 표 상·하단에 참고 및 각주로 제시하였습니다.
- ☒ 통계 내용은 2025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전년 대비 양상이 크게 변화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part 1.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개

1. 센터 개요
2. 주요 기능
3. 피해 지원 및 협력체계도
4. 피해 지원 절차



1. 센터 개요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018년 4월 30일 개소하였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출범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3.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2. 주요 기능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피해 지원

- 365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긴급상담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유포 게시물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선제적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협력체계 운영

- **플랫폼 사업자** 전용 삭제요청 창구 운영
- **수사기관** 유해사이트 폐쇄 및 유포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 의뢰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유포 게시물 삭제·차단을 위한 심의요청
- **국외 지원기관** 삭제요청 불응 사이트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범부처, 관련기관** 상담 및 삭제 신속 지원 핫라인 창구 운영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 확산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및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매뉴얼·보고서 제작 및 확산
-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컨설팅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연구·홍보
-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분야 전문성과 경험 국제사회 확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술 기반 지원체계 구축

- 유관기관 연계 효율화를 위한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고도화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국제공조 강화로 삭제지원 기술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의 기술개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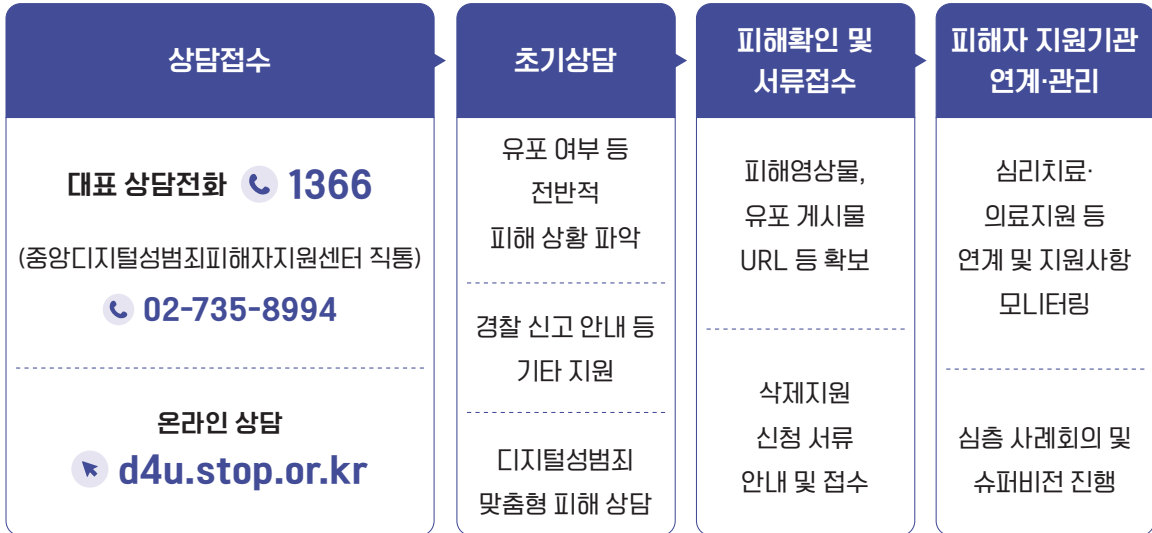
3. 피해 지원 및 협력체계도



4. 피해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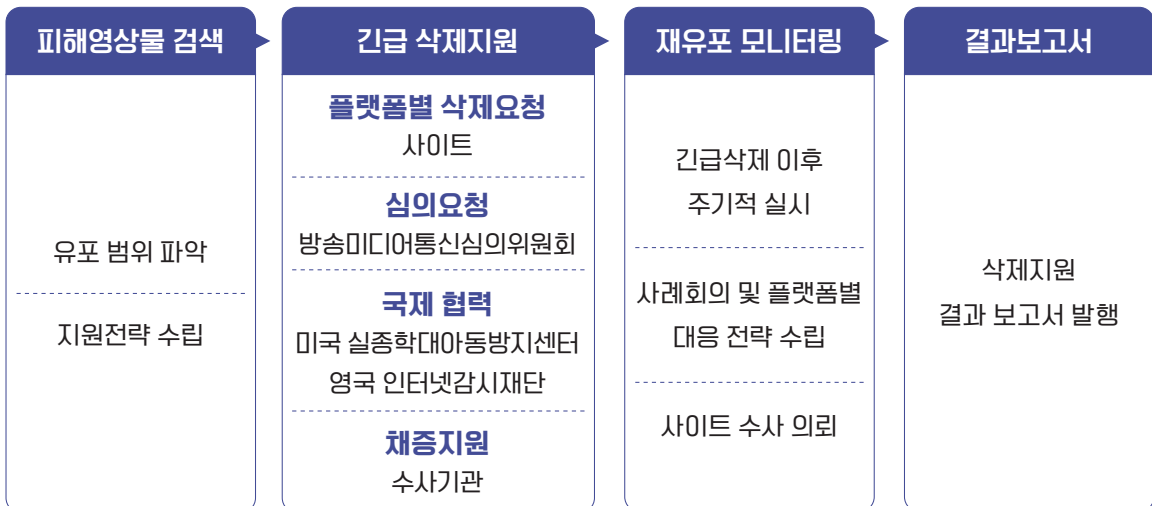


상담지원 업무 흐름도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 ① 피해영상물 유포 전 - 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
- ② 피해영상물 유포 후





선제적 삭제지원 업무 흐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수사기관 삭제지원 요청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현황분석 및 URL 수집

사이트별 모니터링

피해영상물·URL 등 확보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

가해자 소지 피해영상물 등
삭제지원 요청

선제적 삭제지원

지원대상 DB 분류

URL별 채증

피해 유형 분류 및 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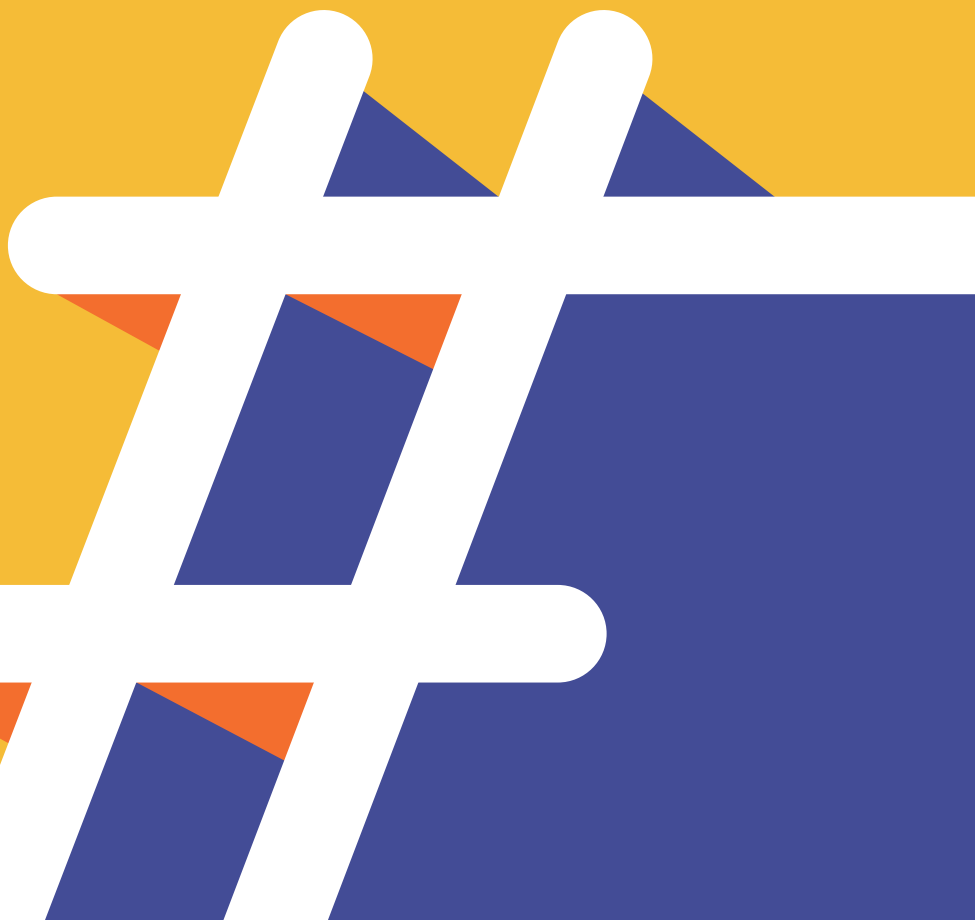
플랫폼별 삭제요청 및 재유포 모니터링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환류

범죄양상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part 2. 피해 및 지원 현황

1. 총평
2. 지원 피해자 현황
3. 피해유형별 피해 발생 현황
4. 지원 현황
5. 국외 사이트 대응 현황



1. 총평

💡 참고

☑ 지원 피해자 수

-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 피해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인원수로 집계

☑ 지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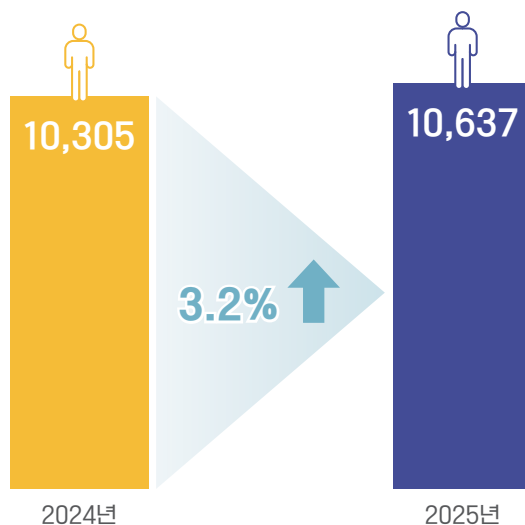
- 해당연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 건수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건수는 피해자 수보다 많게 나타남

(단위: 명, 건)

구분	지원 피해자 수(명)	지원 건수(건)				
		합계	피해영상을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2024년	10,305 (100.0%)	332,341 (100.0%)	300,237 (90.3%)	28,173 (8.5%)	3,826 (1.2%)	105 (0.03%)
2025년	10,637 (100.0%)	352,103 (100.0%)	318,020 (90.3%)	31,591 (9.0%)	2,387 (0.7%)	105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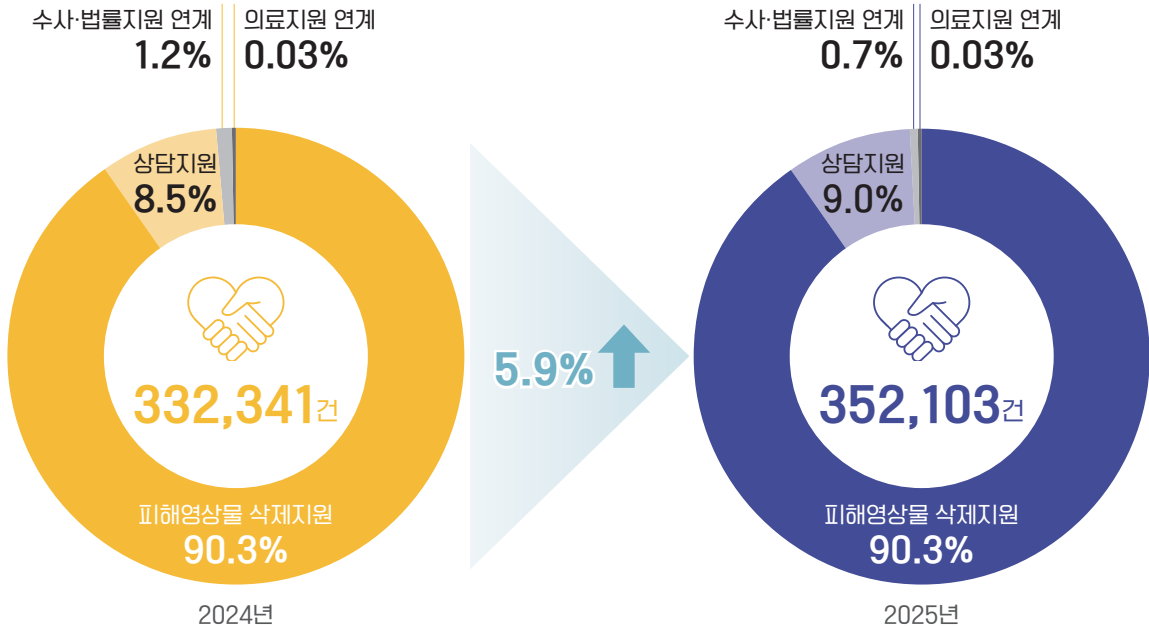
[지원 피해자 수]

(단위: 명)



- ☑ 2025년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637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건수]



- ✓ 2025년 지원 건수는 총 352,103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 이 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8,020건(90.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상담 31,591건(9.0%), 수사·법률지원 연계 2,387건(0.7%), 의료지원 연계 105건(0.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는 피해영상물 확보 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근거한 불법촬영, 합성·편집,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등의 피해영상물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피해자 상담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지원 피해자 현황

참고

-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수로, 센터에 직접 요청하여 지원을 받은 피해자 및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를 합하여 집계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신상정보에 대해 선제적 삭제지원 받은 피해자 수는 피해자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포함하지 않음
- 2024년 이전부터 지원받은 피해자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2025년 피해자 인원내 포함됨

가 인입 시기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신규	지속
2024년	10,305 (100.0%)	6,507 (63.1%)	3,798 (36.9%)
2025년	10,637 (100.0%)	5,840 (54.9%)	4,797 (45.1%)



- ✓ 2025년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637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 ✓ 특히 2024년 이전부터 센터의 지원을 받아온 지속 지원 피해자의 수는 4,797명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약 10%p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복제가 용이한 온라인 환경에서 초기 삭제 이후에도 추가 유포가 반복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현재 센터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기본 지원 기간(3년) 종료 전 원활히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 끊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유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지원 기간 연장 제한 없음

나 최초 상담 경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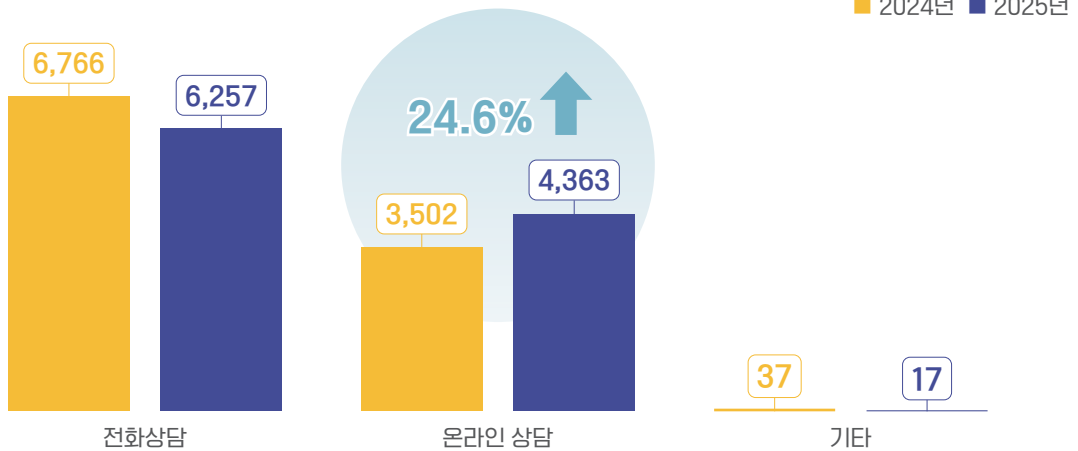
💡 참고

- 센터에 최초로 피해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그 상담 경로별 인원 수를 집계

(단위: 명)

구분	합계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2024년	10,305 (100.0%)	6,766 (65.6%)	3,502 (34.0%)	37 (0.4%)
2025년	10,637 (100.0%)	6,257 (58.8%)	4,363 (41.0%)	17 (0.2%)

* 전화, 온라인 상담을 제외한 센터 방문, 이메일 등 기타 경로로 최초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 ✓ 2025년 최초 상담 경로를 살펴보면, **전화상담이 6,257명(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은 4,363명(41.0%)으로 나타났습니다.
- ✓ 전화상담은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게시판 상담은 전년 대비 24.6%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비대면 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의 유포와 재유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낙인 및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화상담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온라인 상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에 따라 센터는 디지털성범죄STOP 누리집*을 개편하는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원스톱 통합 홈페이지(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

다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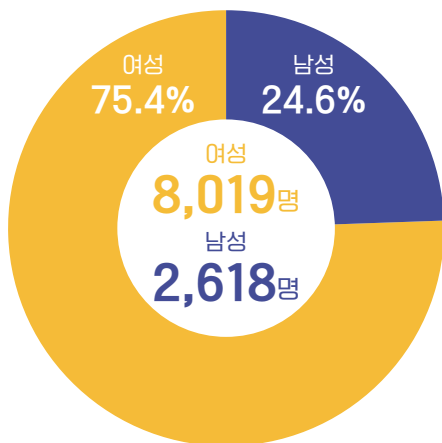
구분	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2024년	여성 7,428 (72.1%)	10 (0.1%)	2,468 (23.9%)	3,326 (32.3%)	1,048 (10.2%)	326 (3.2%)	115 (1.1%)	135 (1.3%)
	남성 2,877 (27.9%)	1 (0.03%)	395 (3.9%)	1,916 (18.6%)	283 (2.7%)	128 (1.2%)	146 (1.4%)	8 (0.1%)
	소계 10,305 (100.0%)	11 (0.1%)	2,863 (27.8%)	5,242 (50.9%)	1,331 (12.9%)	454 (4.4%)	261 (2.5%)	143 (1.4%)
2025년	여성 8,019 (75.4%)	20 (0.2%)	2,592 (24.4%)	3,577 (33.6%)	1,225 (11.5%)	333 (3.1%)	134 (1.3%)	138 (1.3%)
	남성 2,618 (24.6%)	0 (0.0%)	440 (4.1%)	1,649 (15.5%)	264 (2.5%)	119 (1.1%)	135 (1.3%)	11 (0.1%)
	소계 10,637 (100.0%)	20 (0.2%)	3,032 (28.5%)	5,226 (49.1%)	1,489 (14.0%)	452 (4.2%)	269 (2.6%)	149 (1.4%)

* 수사기관을 통해 연계된 신원 불상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또는 의뢰인)가 인적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연령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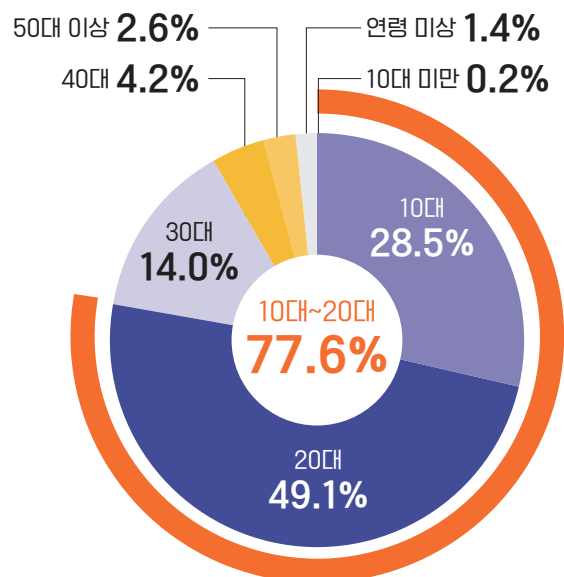
※ 피해자의 연령은 피해 발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집계함

※ 최초 인입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2025년 성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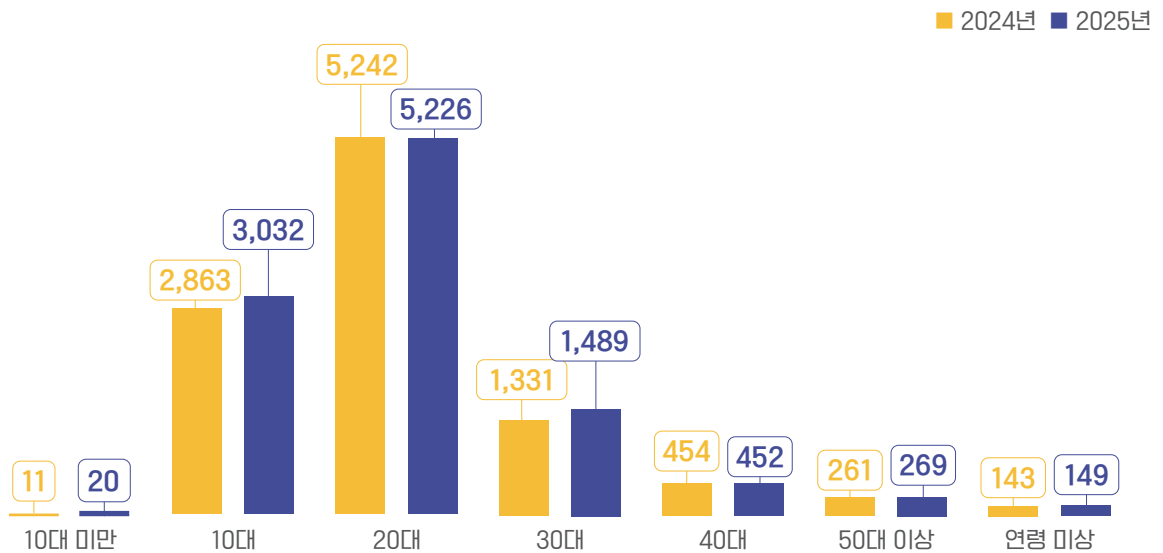


[2025년 연령대별 비율]



- ✓ 2025년 전체 피해자 수는 10,637명으로, 여성 피해자는 8,019명(75.4%), 남성 피해자는 2,618명(24.6%)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여성 피해자 수는 8.0% 증가한 반면, 남성 피해자 수는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전년과 동일하게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많았으나, 50대 이상 피해자는 여성이 134명, 남성이 135명으로 유사한 성비를 보였습니다.
- ✓ 2025년 연령대별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피해자가 5,226명(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피해자가 3,032명(28.5%), 30대 피해자가 1,489명(14.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77.6%를 차지하며**, 2024년에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주로 10대와 20대 연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로,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연령대별 피해자 수 비교]



- ✓ 2025년 10대 미만 피해자 수는 20명(0.2%)으로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으며 모두 여성 피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 ✓ 10대 피해자 수는 3,032명(28.5%)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169명)하였습니다.
- ✓ 20대 피해자 수는 5,226명(49.1%)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피해 연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 ✓ 30대 피해자 수는 1,489명(14%)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158명)하여 피해 연령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 ✓ 40대(452명, 4.2%), 50대 이상(269명, 2.6%), 연령 미상(149명, 1.4%) 피해자 수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피해영상을 확보 여부에 따른 지원유형별 현황

참고

- 센터에서 삭제지원 가능한 영상물의 확보 및 유포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지원 받은 피해자 수를 집계

☑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 피해영상을 원본이 확보되어 유포 여부 파악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진행 후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수로 집계

☑ 피해영상을 삭제지원

- 확보된 피해영상물 원본·URL의 유포가 확인되어 삭제지원을 제공받은 인원수로 집계
- ‘초기 인입 단계에서부터 유포가 확인되어 삭제지원을 제공받은 인원수’와 ‘유포현황 모니터링 후 유포가 확인되어 삭제지원을 제공받은 인원수’의 합

☑ 상담 및 연계 지원

- 피해영상물 원본·URL이 확보되지 않아 상담 또는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를 단독으로 지원 받은 인원 수로 집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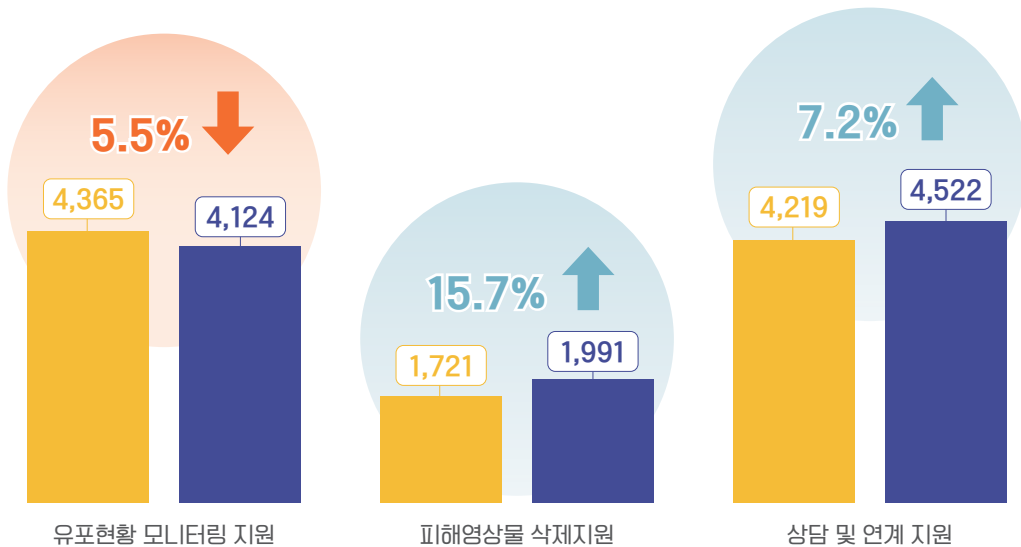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지원 피해자 수	피해영상을 확보			피해영상을 미확보
		합계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상담 및 연계 지원
2024년	10,305 (100.0%)	6,086 (59.1%)	4,365 (42.4%)	1,721 (16.7%)	4,219 (40.9%)
2025년	10,637 (100.0%)	6,115 (57.5%)	4,124 (38.8%)	1,991* (18.7%)	4,522 (42.5%)

* 인입 단계 유포 확인: 1,508명(75.7%)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후 유포 확인: 483명(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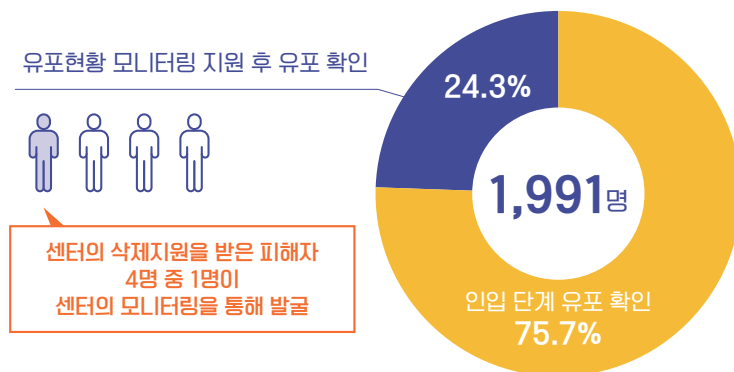
- 2025년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10,637명을 지원받은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연계 지원이 4,522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포현황 모니터링 4,124명(38.8%), 삭제지원 1,991명(1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담 및 연계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유포불안을 호소한 피해건수의 증가 추세(p.29)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영상물이나 유포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안을 호소하고 사전 대응을 원하는 수요가 지속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 센터에서 지원받은 총 피해자 수는 전년보다 3.2% 증가하였는데, 이 중 삭제지원과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각각 15.7%, 7.2% 증가한 반면,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5.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받던 피해자의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즉시 전환되어 삭제지원 인원에만 집계되므로, **유포 여부가 빠르게 확인되어 삭제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 2025년 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 전체 1,991명 중 483명(24.3%)은 센터의 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피해영상물 유포 사실이 확인되어 삭제지원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 이는 올 한 해 동안 센터의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 4명 중 1명이 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 센터에서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모니터링(4,124+483=4,607명) 결과, **10% 이상의 피해자가 유포 사실을 조기에 확인해 신속하게 삭제지원 받은 것(483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 피해영상물 인지 경로별 현황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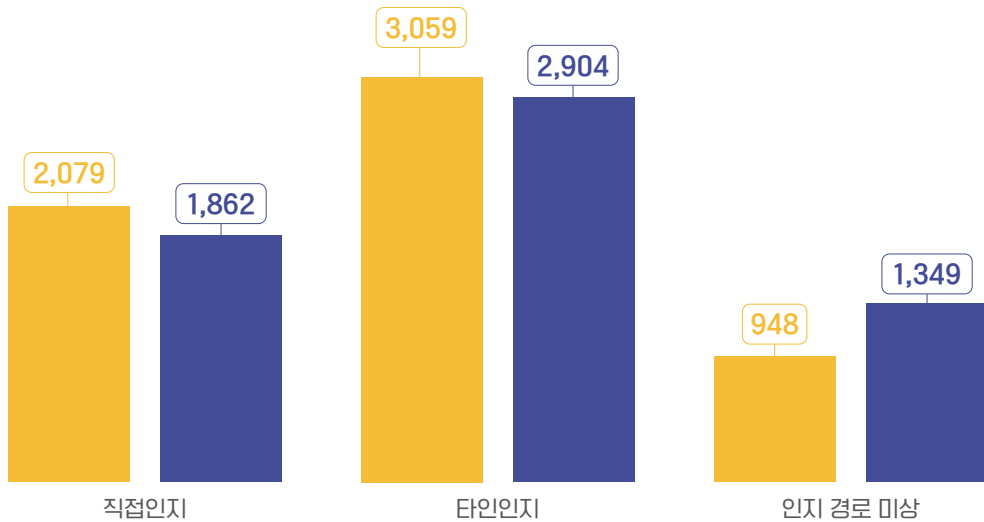
- 센터로부터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및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피해영상물 및 피해를 인지하게 된 경로(직접/타인/미상)별로 해당하는 인원수를 집계

(단위: 명)

구분	합계	직접인지	타인인지	인지 경로 미상*
2024년	6,086 (100.0%)	2,079 (34.1%)	3,059 (50.3%)	948 (15.6%)
2025년	6,115 (100.0%)	1,862 (30.4%)	2,904 (47.5%)	1,349 (22.1%)

* 피해자가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는 경우 등

■ 2024년 ■ 2025년



- 2025년 센터의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및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은 피해자(6,115명)의 피해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본인이 직접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1,862명(30.4%), 타인이 인지한 경우는 2,904명(47.5%), 인지 경로 미상은 1,349명(22.1%)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년과 동일하게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인지한 경우보다 타인을 통해 피해를 인지한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으로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 합성·편집(딥페이크 성범죄 등) 현황

 참고

☒ 신규

- 당해 연도 신규 피해자 수

☒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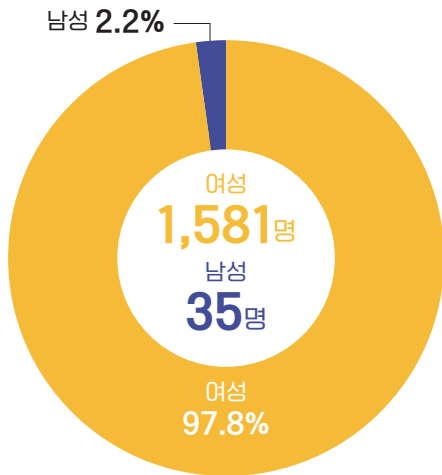
- 2025년 이전에 피해가 접수되었으나, 지속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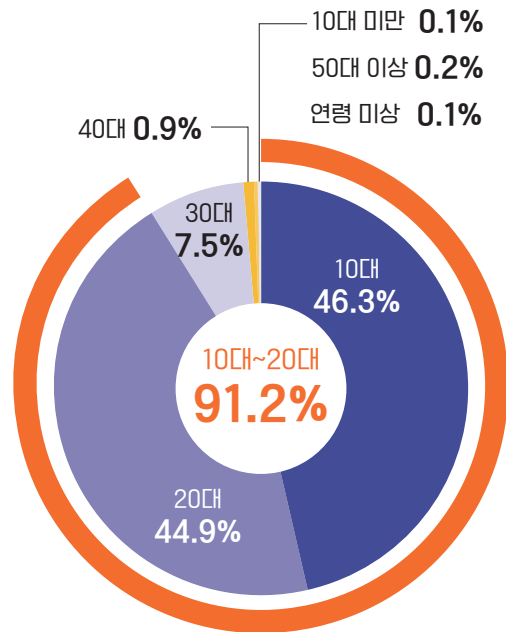
구분		합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신규	여성	716 (96.1%)	1 (0.1%)	341 (45.8%)	310 (41.6%)	52 (7.0%)	9 (1.2%)	2 (0.3%)	1 (0.1%)
	남성	29 (3.9%)	0 (0.0%)	10 (1.3%)	17 (2.3%)	2 (0.3%)	0 (0.0%)	0 (0.0%)	0 (0.0%)
	소계	745 (100.0%)	1 (0.1%)	351 (47.1%)	327 (43.9%)	54 (7.3%)	9 (1.2%)	2 (0.3%)	1 (0.1%)
지속	여성	865 (99.4%)	0 (0.0%)	397 (45.6%)	397 (45.6%)	66 (7.6%)	5 (0.6%)	0 (0.0%)	0 (0.0%)
	남성	6 (0.6%)	0 (0.0%)	1 (0.1%)	1 (0.1%)	2 (0.2%)	1 (0.1%)	1 (0.1%)	0 (0.0%)
	소계	871 (100.0%)	0 (0.0%)	398 (45.7%)	398 (45.7%)	68 (7.8%)	6 (0.7%)	1 (0.1%)	0 (0.0%)
합계	여성	1,581 (97.8%)	1 (0.1%)	738 (45.6%)	707 (43.8%)	118 (7.3%)	14 (0.8%)	2 (0.1%)	1 (0.1%)
	남성	35 (2.2%)	0 (0.0%)	11 (0.7%)	18 (1.1%)	4 (0.2%)	1 (0.1%)	1 (0.1%)	0 (0.0%)
	소계	1,616 (100.0%)	1 (0.1%)	749 (46.3%)	725 (44.9%)	122 (7.5%)	15 (0.9%)	3 (0.2%)	1 (0.1%)

- ✓ 합성·편집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총 1,616명으로, 이 중 신규 피해자는 745명(여성 716명, 남성 29명), 지속 피해자는 871명(여성 865명, 남성 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합성·편집 피해 성별 비율]



[합성·편집 피해 연령대별 비율]



- ✓ 합성·편집 피해를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피해자 중 여성 피해자가 97.8%, 남성 피해자가 2.2%로, 여성 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 연령대별 합성·편집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0대가 749명(4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20대 725명(44.9%), 30대 122명(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합성·편집 피해자 수의 대부분(91.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높은 세대를 중심으로 학교 등의 커뮤니티 내에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30대 피해자가 전년 대비 64.9% 증가(74명→122명)한 점을 보면, **합성·편집 피해가 10대, 20대 외의 연령대에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현황

참고

- 센터 상담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별로 피해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가해자'는 법적 정의와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특정된 경우는 아님

☑ 일시적 관계

- 채팅 상대 혹은 일회성으로만 만난 사람

☑ 모르는 사람

-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되었으나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 친밀한 관계

- 배우자, 전 배우자, 애인, 전 애인

☑ 사회적 관계

- 학교, 직장, 기관 등 업무 및 사회적 활동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

☑ 가족 관계

-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 형제·자매, 친척·사촌 등 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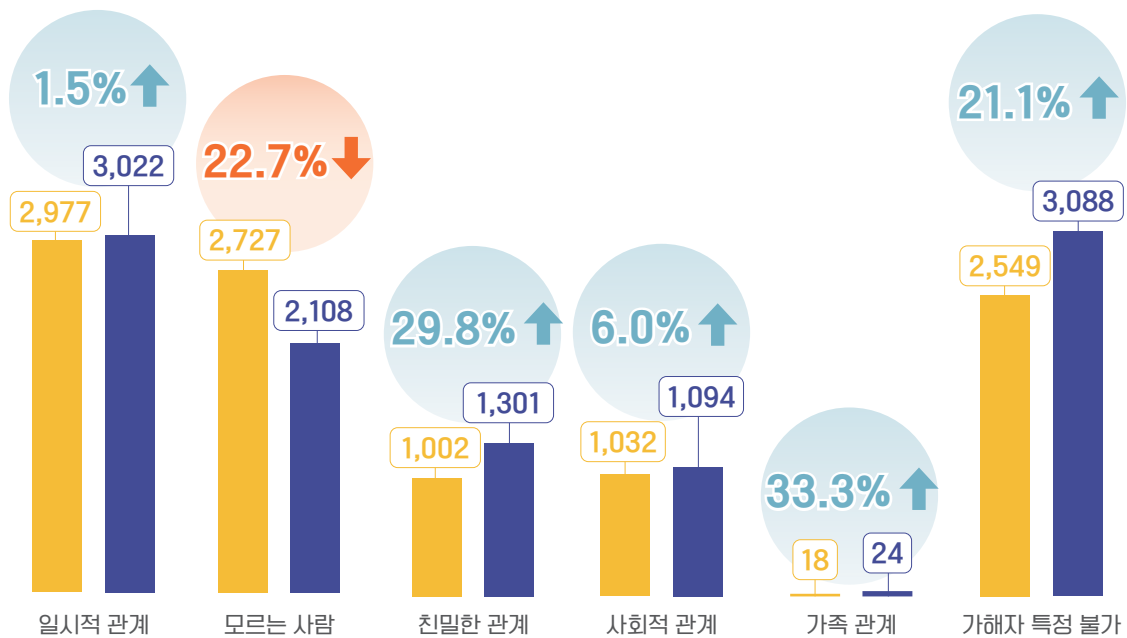
☑ 가해자 특정 불가

-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예) 지인 제보를 통해 불법 유포사이트에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것은 알았으나 누가 불법촬영을 했는지 또는 누가 유포했는지 가해자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전년 대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가해자 특정 불가
2024년	10,305 (100.0%)	2,977 (28.9%)	2,727 (26.5%)	1,002 (9.7%)	1,032 (10.0%)	18 (0.2%)	2,549 (24.7%)
2025년	10,637 (100.0%)	3,022 (28.4%)	2,108 (19.8%)	1,301 (12.3%)	1,094 (10.3%)	24 (0.2%)	3,088 (29.0%)
전년대비 증감비율	3.2%	1.5%	△22.7%	29.8%	6.0%	33.3%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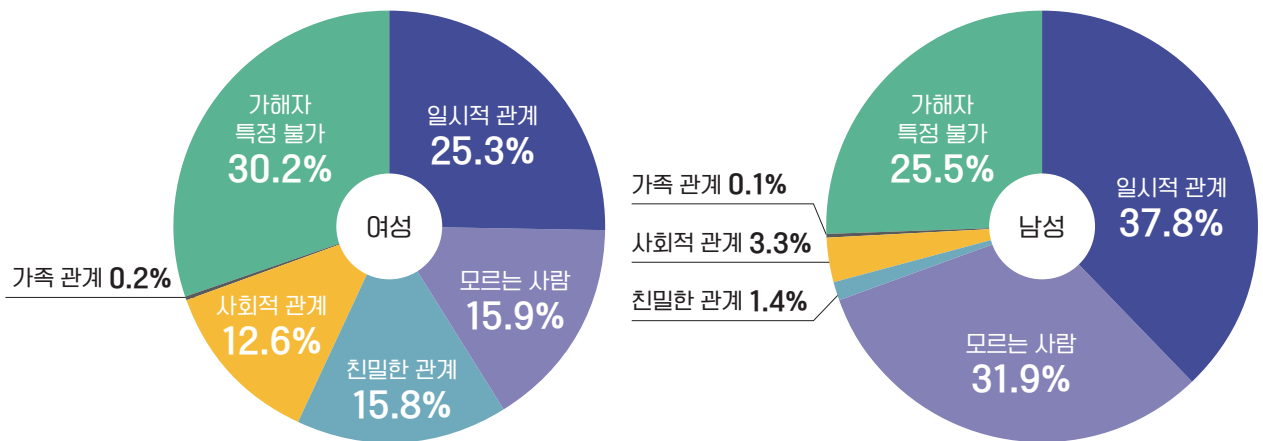
- ✓ 2025년 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 10,637명을 가해자와의 관계로 살펴보면,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는 **‘가해자 특정 불가’가 3,088명(29.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채팅 상대, 일회성 만남 등과 같은 **일시적 관계(28.4%)**, 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 사회적 관계(10.3%), 가족 관계(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가해자 특정 불가’는 전년에 두 번째로 많았던 반면, 올해에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539명)하며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국외 서버에서의 유포 증가와 최초 유포 이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 아울러, 친밀한 관계(애인, 전 애인, 배우자, 전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두 번째 큰 폭으로 증가(+299명) 하였는데, 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약 49.1%를 차지하는 20대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전년 대비 현저히 증가(+31.8%)한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 성별 현황

1순위 2순위

(단위: 명)

구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가해자 특정 불가
여성	8,019 (100.0%)	2,033 (25.3%)	1,274 (15.9%)	1,264 (15.8%)	1,008 (12.6%)	20 (0.2%)	2,420 (30.2%)
남성	2,618 (100.0%)	989 (37.8%)	834 (31.9%)	37 (1.4%)	86 (3.3%)	4 (0.1%)	668 (25.5%)
합계	10,637 (100.0%)	3,022 (28.4%)	2,108 (19.8%)	1,301 (12.3%)	1,094 (10.3%)	24 (0.2%)	3,088 (29.0%)



- ✓ 2025년 성별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가해자 특정 불가(30.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일시적 관계(25.3%), 모르는 사람(15.9%), 친밀한 관계(15.8%), 사회적 관계(12.6%), 가족 관계(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반면, **남성의 경우 일시적 관계(37.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모르는 사람(31.9%), 가해자 특정 불가(25.5%), 사회적 관계(3.3%), 친밀한 관계(1.4%), 가족 관계(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현황

1순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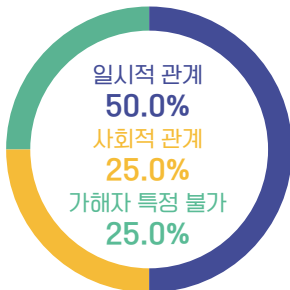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가해자 특정 불가
10대 미만	20 (100.0%)	10 (50.0%)	0 (0.0%)	0 (0.0%)	5 (25.0%)	0 (0.0%)	5 (25.0%)
10대	3,032 (100.0%)	1,236 (40.8%)	413 (13.6%)	154 (5.1%)	495 (16.3%)	5 (0.2%)	729 (24.0%)
20대	5,226 (100.0%)	1,144 (21.9%)	1,434 (27.4%)	729 (14.0%)	381 (7.3%)	10 (0.2%)	1,528 (29.2%)
30대	1,489 (100.0%)	336 (22.6%)	188 (12.6%)	299 (20.1%)	128 (8.6%)	6 (0.4%)	532 (35.7%)
40대	452 (100.0%)	125 (27.7%)	49 (10.8%)	88 (19.5%)	54 (11.9%)	1 (0.2%)	135 (29.9%)
50대 이상	269 (100.0%)	106 (39.4%)	21 (7.8%)	27 (10.0%)	26 (9.7%)	2 (0.8%)	87 (32.3%)
연령 미상	149 (100.0%)	65 (43.6%)	3 (2.0%)	4 (2.7%)	5 (3.4%)	0 (0.0%)	72 (48.3%)
합계	10,637 (100.0%)	3,022 (28.4%)	2,108 (19.8%)	1,301 (12.3%)	1,094 (10.3%)	24 (0.2%)	3,088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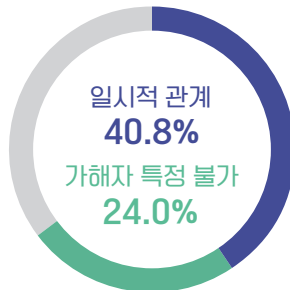
- ✓ 2025년 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 10,637명의 가해자와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성인의 경우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해자 특정 불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 ✓ 반면 미성년인 10대 미만과 10대에서는 일시적 관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 미성년의 경우 소셜미디어와 채팅앱 사용이 활발한 연령대로, 익명성을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접근이 용이한 채팅앱 등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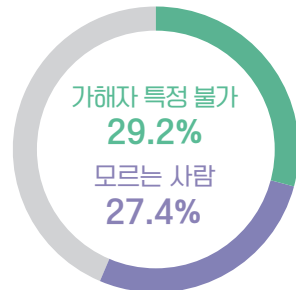
■ 일시적 관계 ■ 모르는 사람 ■ 친밀한 관계 ■ 사회적 관계 ■ 가족 관계 ■ 가해자 특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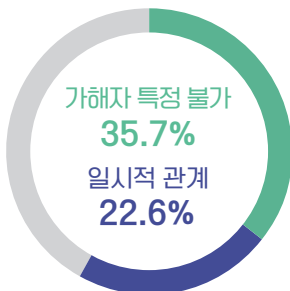
10대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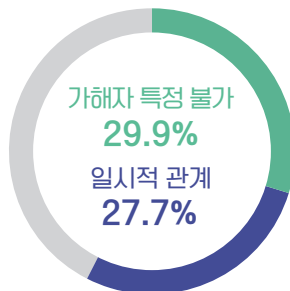
1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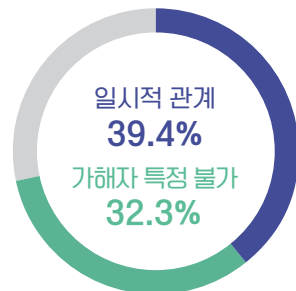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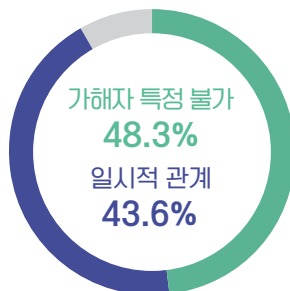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3. 피해 유형별 피해 발생 현황



- 센터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자가 호소한 피해 건수를 피해유형별로 집계
 - ※ 단, 1명의 피해자가 동일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경우 1건으로 간주하고, 피해 유형이 다를 경우 각 1건씩 중복 집계
- 동일 피해자가 다수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건수는 지원 피해자 수보다 많음

불법촬영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
- 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합성·편집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과 같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경우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비동의 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3항

유포협박

- 동의/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

유포불안

-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 사이버 괴롭힘

-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영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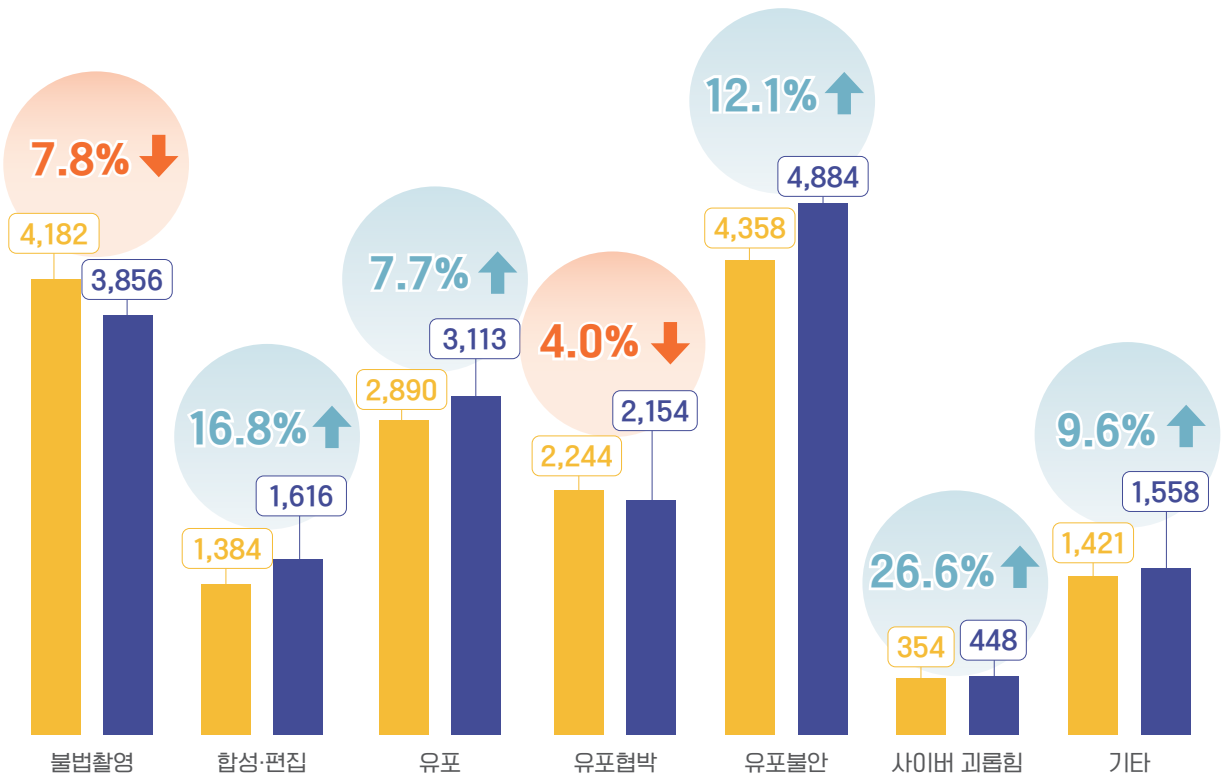
- SNS 해킹, 사칭 등 피해 지원 범위 비해당 유형

가 전년 대비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24년	16,833 (100.0%)	4,182 (24.9%)	1,384 (8.2%)	2,890 (17.2%)	2,244 (13.3%)	4,358 (25.9%)	354 (2.1%)	1,421 (8.4%)
2025년	17,629 (100.0%)	3,856 (21.9%)	1,616 (9.2%)	3,113 (17.7%)	2,154 (12.2%)	4,884 (27.7%)	448 (2.5%)	1,558 (8.8%)
전년대비 증감비율	4.7%	△7.8%	16.8%	7.7%	△4.0%	12.1%	26.6%	9.6%

- ✓ 2025년 전체 피해 건수는 17,629건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전체 피해자 수가 10,637명임을 고려할 때, **1인당 평균 약 1.7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피해 건수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4,884건(27.7%)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실제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불안 호소 및 사전 대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불법촬영 3,856건(21.9%), 유포 3,113건(17.7%), 유포 협박 2,154건(12.2%), 합성·편집 1,616건(9.2%), 기타 1,558건(8.8%), 사이버 괴롭힘 448건(2.5%)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피해 유형의 분포는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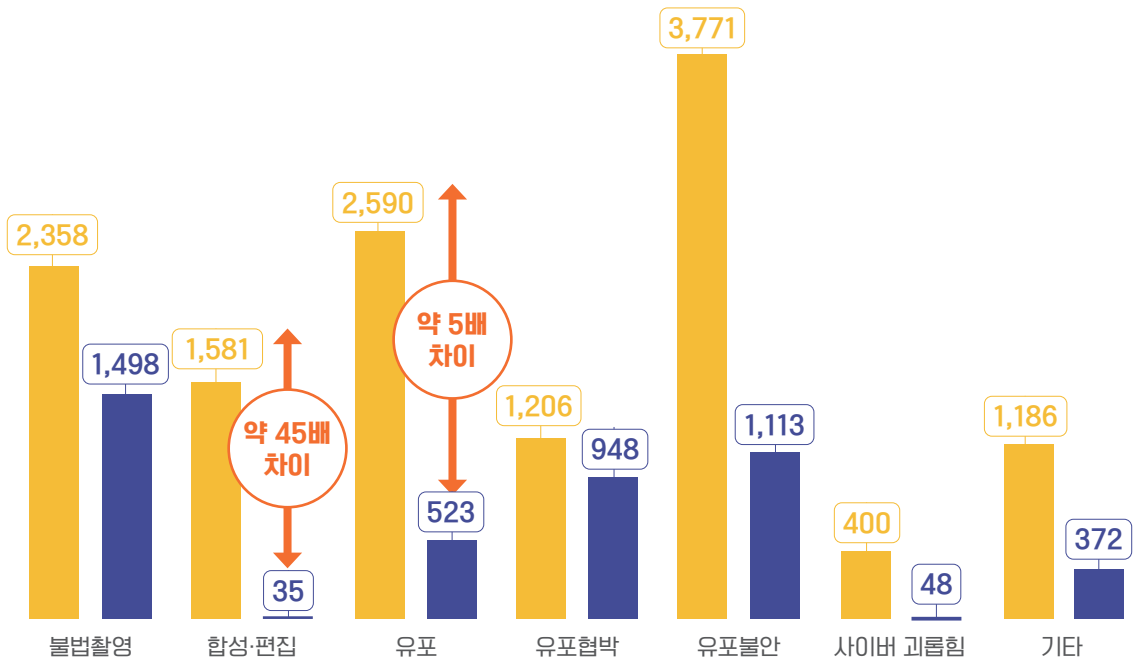
- ✓ 불법촬영 피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의 21.9%를 차지해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년 대비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성범죄가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 성별 현황

■ 1순위 ■ 2순위

(단위: 건)

구분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여성	13,092 (74.3%)	2,358 (61.2%)	1,581 (97.8%)	2,590 (83.2%)	1,206 (56.0%)	3,771 (77.2%)	400 (89.3%)	1,186 (76.1%)
남성	4,537 (25.7%)	1,498 (38.8%)	35 (2.2%)	523 (16.8%)	948 (44.0%)	1,113 (22.8%)	48 (10.7%)	372 (23.9%)
합계	17,629 (100.0%)	3,856 (100.0%)	1,616 (100.0%)	3,113 (100.0%)	2,154 (100.0%)	4,884 (100.0%)	448 (100.0%)	1,558 (100.0%)



- ✓ 2025년 성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은 유포불안(3,771건)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유포(2,590건), 불법촬영(2,358건), 합성·편집(1,581건), 유포협박(1,206건), 사이버괴롭힘(40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반면, 남성은 불법촬영(1,498건)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포불안(1,113건), 유포협박(948건), 유포(523건), 사이버괴롭힘(48건), 합성·편집(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유포 피해의 경우, 여성이 2,590건(83.2%)으로, 남성 523건(16.8%)보다 약 5배 많았습니다. 이는 **주된 유포 사이트에서 여성의 성적 피해영상물이 주로 소비·유통되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여성의 합성·편집 피해는 2024년 1,337건, 2025년 1,581건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여성 피해(1,581건)가 남성 피해(35건)보다 약 45배 많았습니다.
 - 이는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편집물이 여성의 얼굴 및 신체 이미지를 주요 대상으로 제작되어 생성·유포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 연령별 현황

1순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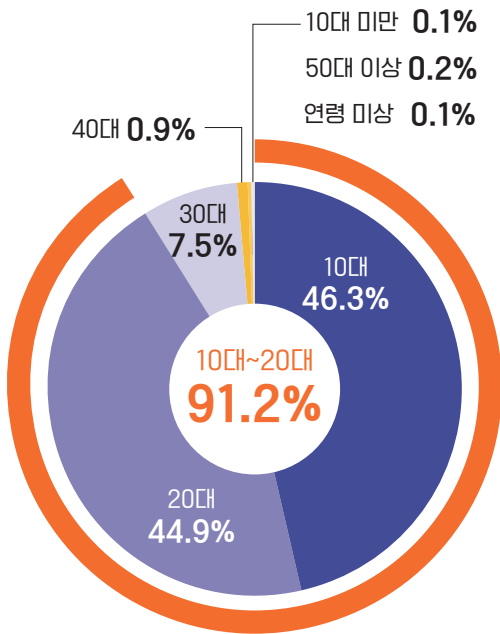
(단위: 명, 건)

구분	피해자 (명)	피해 유형 (건)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10대 미만	20	35 (0.2%)	17 (0.5%)	1 (0.1%)	1 (0.03%)	6 (0.3%)	10 (0.2%)	0 (0.0%)	0 (0.0%)
10대	3,032	5,226 (29.6%)	1,312 (34.0%)	749 (46.3%)	655 (21.0%)	642 (29.8%)	1,420 (29.1%)	149 (33.2%)	299 (19.2%)
20대	5,226	8,287 (47.0%)	1,874 (48.6%)	725 (44.9%)	1,438 (46.2%)	944 (43.8%)	2,206 (45.2%)	227 (50.7%)	873 (56.0%)
30대	1,489	2,556 (14.5%)	370 (9.6%)	122 (7.5%)	674 (21.7%)	299 (13.9%)	835 (17.1%)	47 (10.5%)	209 (13.4%)
40대	452	826 (4.7%)	124 (3.2%)	15 (0.9%)	197 (6.3%)	130 (6.0%)	255 (5.2%)	17 (3.8%)	88 (5.7%)
50대 이상	269	509 (2.9%)	116 (3.0%)	3 (0.2%)	67 (2.2%)	108 (5.0%)	141 (2.9%)	5 (1.1%)	69 (4.4%)
연령 미상	149	190 (1.1%)	43 (1.1%)	1 (0.1%)	81 (2.6%)	25 (1.2%)	17 (0.3%)	3 (0.7%)	20 (1.3%)
합계	10,637	17,629 (100.0%)	3,856 (100.0%)	1,616 (100.0%)	3,113 (100.0%)	2,154 (100.0%)	4,884 (100.0%)	448 (100.0%)	1,5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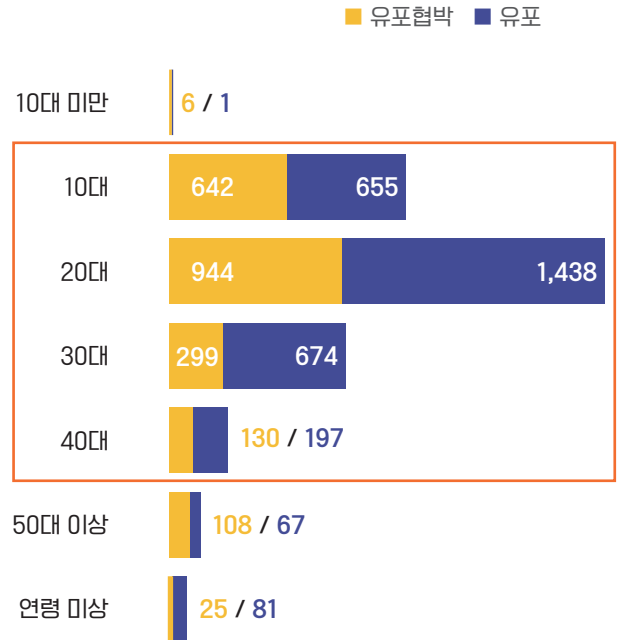
✓ 2025년 연령대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10대 미만과 연령 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유포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는 실제 유포를 경험한 피해자의 경우 초기 삭제 조치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반복적인 재유포 경험 등으로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실제 유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AI 기술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과 협박·그루밍 등 사전 단계 범죄의 증가로 유포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식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유포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합성·편집 피해 연령대별 비율]



[유포 및 유포협박 피해 연령대별 비율]



- ✓ 합성·편집 피해의 경우, 10대와 20대 피해 건수가 1,474건으로 91.2%를 차지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 유포협박 피해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 유형에 따라서 실제 유포로 이어지는 경우와 협박 피해만 존재하는 경우 등의 양상이 있습니다. 실제 유포 피해와 유포 협박 피해 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유포 협박의 목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0대의 경우 피해자 3,032명 중 유포 협박 피해는 642건, 유포 피해는 655건으로 두 피해 유형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이 중복 집계된 점을 고려할 때, **10대 피해자에 대한 유포 협박은 실제 유포로 이어지거나, 유포 이후 추가 유포 협박을 경험한 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20대에서 40대 피해자는 유포 피해가 유포 협박 피해보다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실제 유포 피해보다 유포 협박 피해가 높았습니다. 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영상물의 실제 유포보다는 금전 요구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여 유포협박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지원 현황

가 피해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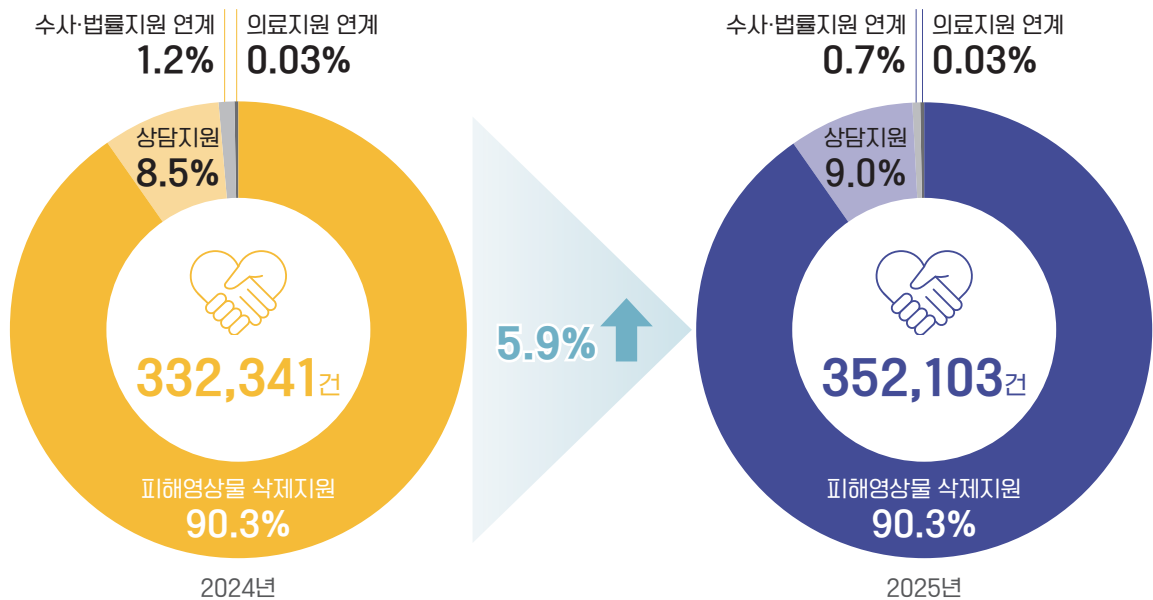
참고

☑ 지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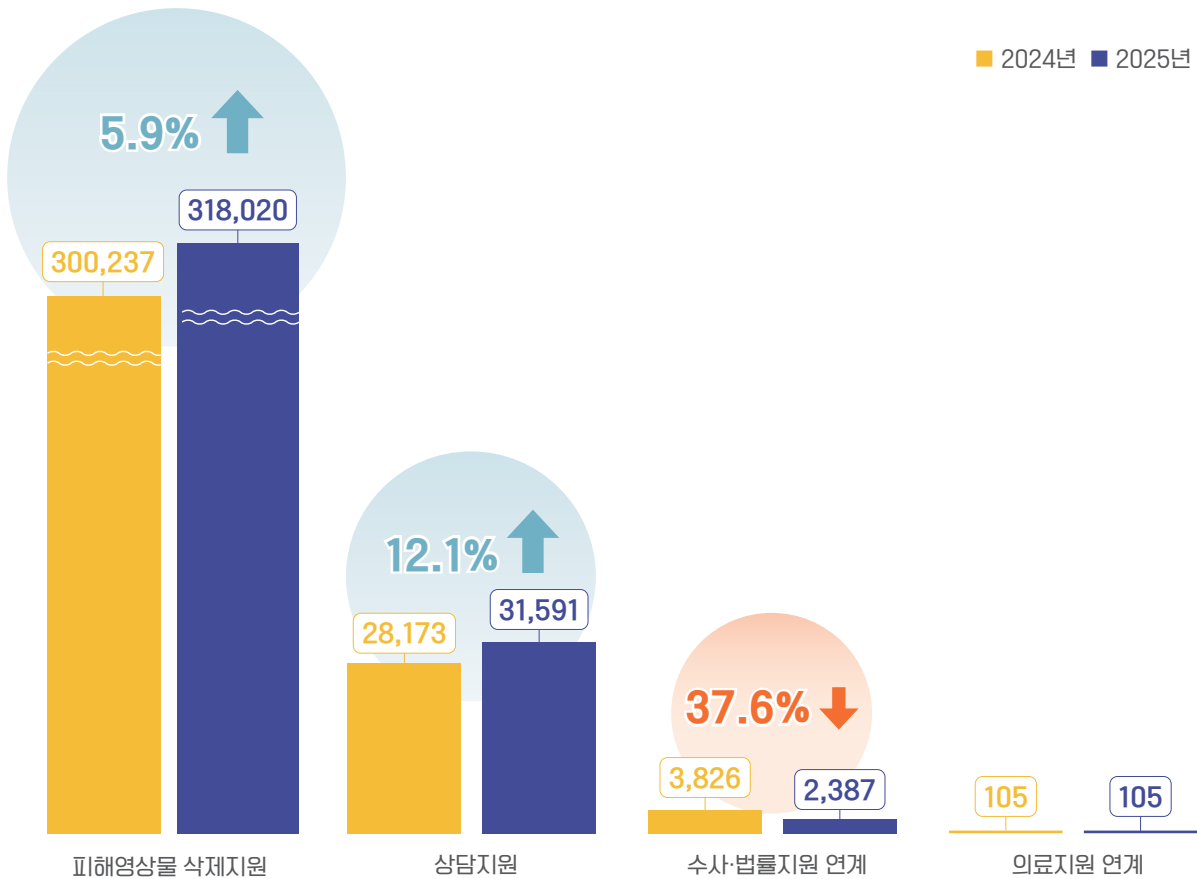
- 센터로 인입된 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 건수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건수는 피해자 수보다 많게 나타남

(단위: 명, 건)

구분	지원 건수 (건)				
	합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2024년	332,341 (100.0%)	300,237 (90.3%)	28,173 (8.5%)	3,826 (1.2%)	105 (0.03%)
2025년	352,103 (100.0%)	318,020 (90.3%)	31,591 (9.0%)	2,387 (0.7%)	105 (0.03%)
전년대비 증감비율	5.9%	5.9%	12.1%	△37.6%	0.0%



■ 2024년 ■ 2025년



✓ 2025년 총 지원건수는 352,103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유형별로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318,020건(90.3%), 상담지원 31,591건(9.0%), 수사·법률지원 연계 2,387건(0.7%), 의료 지원 연계 105건(0.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은 불법 유해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공개된 플랫폼 내 유포된 피해자의 피해 영상물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지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17,783건)하여 올해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 상담지원은 센터가 피해자에게 피해 대응 방법 안내, 지원 현황 상담, 정보 제공,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한 지원으로, 전년 대비 12.1%증가(+3,418건)하였습니다.
- 수사·법률지원 연계는 피해자의 사건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와 수사기관 간 연계 협업을 통해 수사 및 법률지원을 연계한 건수로 전년 대비 37.6% 감소(△1,439건)하였고, 의료지원 연계는 성폭력 상담소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을 연계한 건수로 105건이며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



- 센터에서 삭제지원한 건 수를 각 플랫폼별로 구분하여 집계

☒ 불법 유해사이트

- 불법 콘텐츠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

☒ 검색엔진

- 인터넷의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

☒ 소셜미디어(SNS)

- 개인의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여 정보 공유 또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 커뮤니티

- 공통 주제를 공유하며 이용자 간 소통하는 플랫폼
- 이미지 업로드·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호스팅 사이트

☒ 클라우드

- 중앙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스트리밍

-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웹하드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파일 공유 사이트

☒ P2P

- 토렌트 등 P2P(Peer-to-peer Network)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 블로그

- 검색엔진 내 개인별 온라인 공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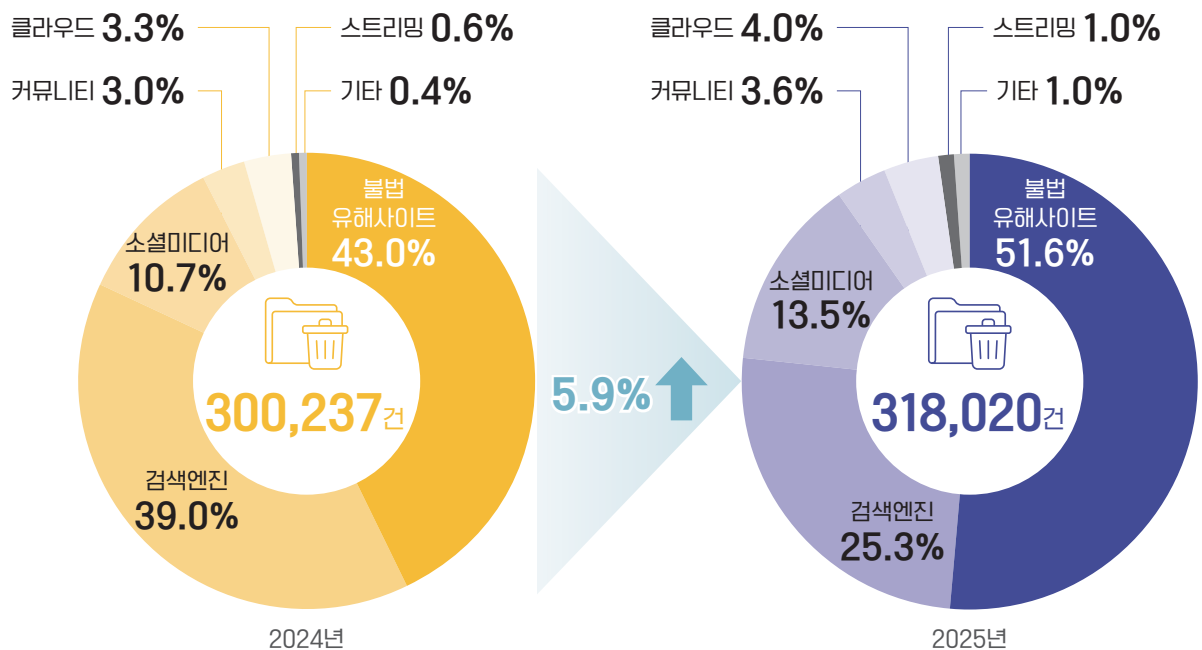
☒ 아카이브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웹페이지를 영구 보존하는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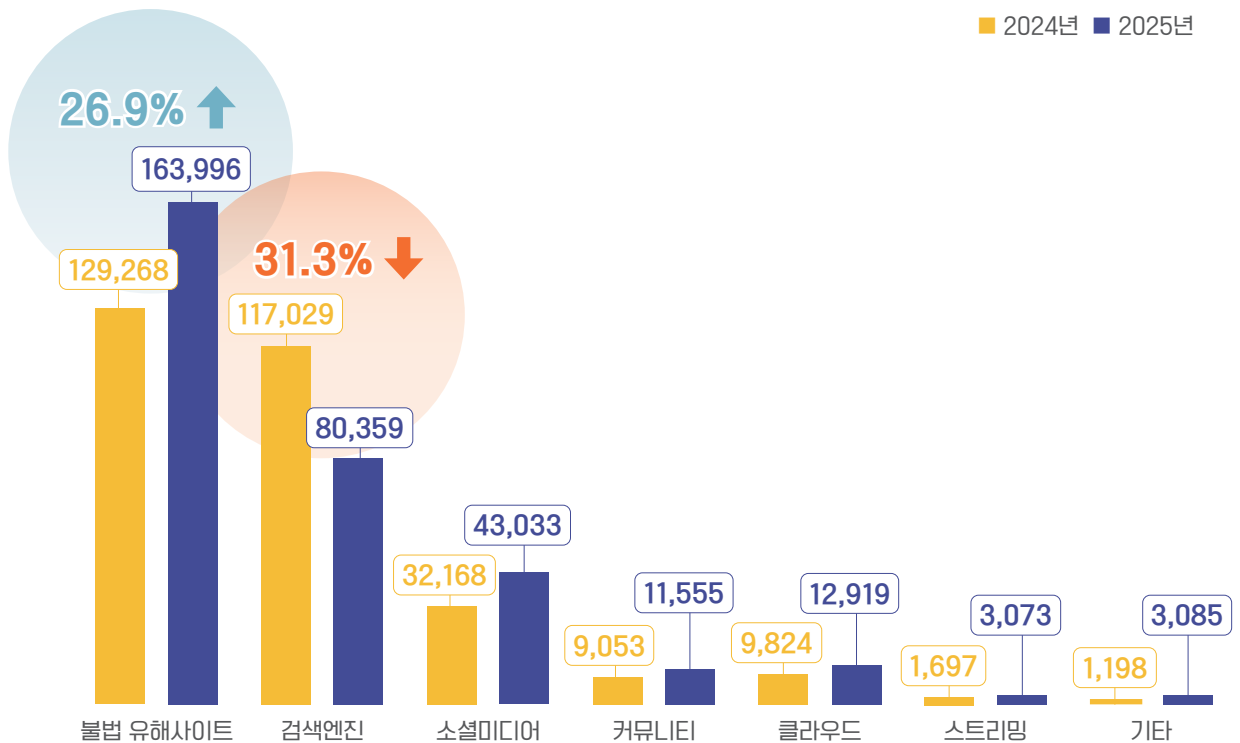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합계	불법 유해사이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타*
2024년	300,237 (100.0%)	129,268 (43.0%)	117,029 (39.0%)	32,168 (10.7%)	9,053 (3.0%)	9,824 (3.3%)	1,697 (0.6%)	1,198 (0.4%)
2025년	318,020 (100.0%)	163,996 (51.6%)	80,359 (25.3%)	43,033 (13.5%)	11,555 (3.6%)	12,919 (4.0%)	3,073 (1.0%)	3,085 (1.0%)

* 웹하드, P2P, 블로그, 아카이브 등



- ✓ 2025년 총 삭제지원 건수는 318,020건으로, 2024년(300,237건)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 ✓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유해사이트가 163,996건(5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검색엔진 80,359건(25.3%), 소셜미디어 43,033건(13.5%), 클라우드 12,919건(4.0%), 커뮤니티 11,555건(3.6%), 스트리밍 3,073건(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검색엔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 유형에서 지원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 불법 유해사이트 건수는 전년 대비 34,728건 증가(+26.9%)하며 2025년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익명성 보장 및 국내법상 행정제재 회피를 위한 국외 서버 기반의 불법 유해사이트가 주요 유포 경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해사이트의 유포 게시글과 동반 유포되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랫폼의 건수도 각각 3,095건, 1,376건 증가했습니다.
-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10,865건, 2,502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 간 공유·댓글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 등 **2차 피해 형태의 게시글 유포가 용이한 플랫폼의 특성과 신상정보 삭제지원 확대의 제도적 환경이 결합되어 지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반면, 검색엔진 건수는 80,359건으로 전년 대비 36,670건 감소(△31.3%)했습니다. 검색엔진 삭제 지원은 피해영상물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는 검색결과에 대한 삭제지원 건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플랫폼의 유사한 검색결과 필터링 및 자체 차단 조치 강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색 결과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우회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되는 등 운영 수법을 폐쇄적으로 전환한 사이트의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센터에서 삭제지원한 건수를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각 지원근거 조항별로 구분하여 집계

☑ 피해자 등 요청(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 피해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하여 삭제지원한 건수로 집계

☑ 수사기관 요청(제7조의3제3항제1호)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한 건수로 집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7조의3제3항제2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요청 없이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한 건수로 집계

(단위: 건)

구분	합계	피해자 등 요청	선제적 삭제지원		
			소계	수사기관 요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24년	300,237 (100.0%)	244,457 (81.4%)	55,780 (18.6%)	18,131 (6.0%)	37,649 (12.6%)
2025년	318,020 (100.0%)	257,257 (80.9%)	60,763 (19.1%)	19,907 (6.3%)	40,856 (12.8%)

- ✓ 2021년 「성폭력방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지원요청에 따른 피해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센터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025년 총 삭제지원 건수는 318,020건이며, 피해자 등 요청에 따른 삭제지원은 257,257건(80.9%), 선제적 삭제지원은 60,763건(19.1%)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자 등 요청에 의한 삭제지원은 전체 삭제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0.5%p), 지원 건수는 257,257건으로 전년 대비 5.2%(+12,800건) 증가했습니다.
- 한편, 선제적 삭제지원 건수는 55,780건에서 60,763건으로 8.9% 증가했으며, 전체 삭제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6%에서 19.1%로 상승하여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선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신상정보 삭제지원 현황

참고

- 유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해영상물과 동반 유포되거나 단독 유포되어 센터에서 삭제지원한 건수와 유출된 신상정보 개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집계
- 삭제지원한 게시물에 여러 유형의 신상정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개수는 신상정보 삭제 지원 건수보다 많게 나타남
- ※ 2024년 신상정보 삭제지원 현황은 피해영상물과 개인정보가 동반 유출된 건에 대해서만 집계(신상정보 단독 유포는 포함하지 않음)

☑ 신상정보 유형 중 2025년 신규 집계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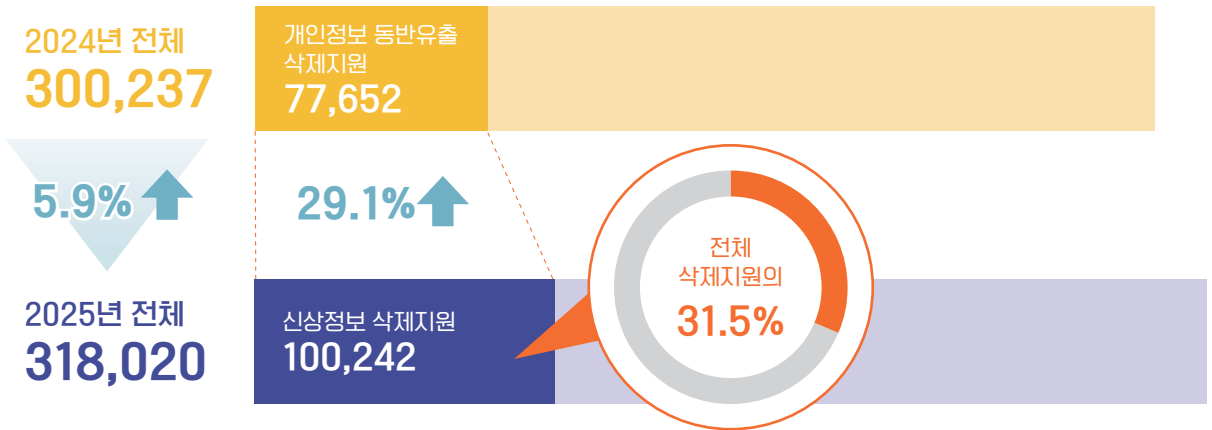
- 용모: 피해자의 신체적·외형적 특징, 신체 지표(측정 정보)
- 사진: 피해자의 일상 사진, 사생활 노출 사진, 신상정보 노출 사진 등
- 기타: 피해영상물의 유포 키워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인종·민족·출신국가 등

① 전년 대비 현황

(단위: 건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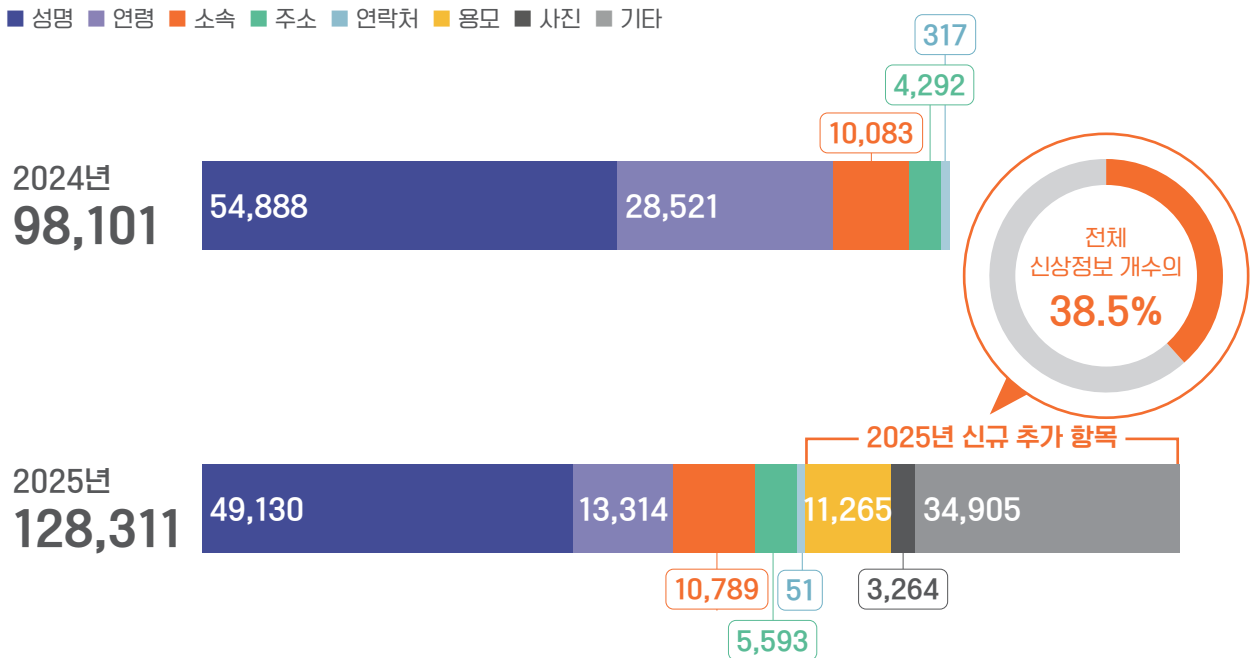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삭제지원	신상정보 삭제지원	신상정보 유형(개)								
			합계	성명	연령	소속	주소	연락처	용모	사진	기타
2024년	300,237 (100.0%)	77,652 (25.9%)	98,101 (100.0%)	54,888 (55.9%)	28,521 (29.1%)	10,083 (10.3%)	4,292 (4.4%)	317 (0.3%)	-	-	-
2025년	318,020 (100.0%)	100,242 (31.5%)	128,311 (100.0%)	49,130 (38.3%)	13,314 (10.4%)	10,789 (8.4%)	5,593 (4.4%)	51 (0.04%)	11,265 (8.8%)	3,264 (2.5%)	34,905 (27.2%)
전년대비 증감비율	5.9%	29.1%	30.8%	△10.5%	△53.3%	7.0%	30.3%	△83.9%	-	-	-

[전체 삭제지원 대비 신상정보 삭제지원 비율]



- ✓ 센터에서는 2025년 4월 17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을 근거로 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영상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동반으로 유출되었을 때만 삭제지원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피해자의 신상정보만 단독으로 유출된 경우에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었으며**, 법률자문을 통해 ‘용모’, ‘사진’, ‘기타’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기반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25년 신상정보 삭제지원 건수는 100,242건으로 전년 대비 22,590건(+29.1%)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전체 삭제지원(318,020건)의 31.5%를 차지했습니다.

[유출된 신상정보 유형]



- ✓ 2025년 유출된 신상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명이 49,130개(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기타 34,905개(27.2%), 연령 13,314개(10.4%), 용모 11,265개(8.8%), 소속 10,789개(8.4%), 주소 5,593개(4.4%), 사진 3,264개(2.5%), 연락처 51개(0.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5년 신규로 추가된 용모와 사진, 기타의 경우 총 49,434개로 전체 신상정보(128,311개)의 **38.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타' 항목에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나이 등 직접적인 개인정보 없이 피해영상을 자체를 지목하는 '유포 키워드(예: 'OO녀, OO커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포 키워드는 피해영상을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해당 항목까지 삭제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② 연령별 신상정보 삭제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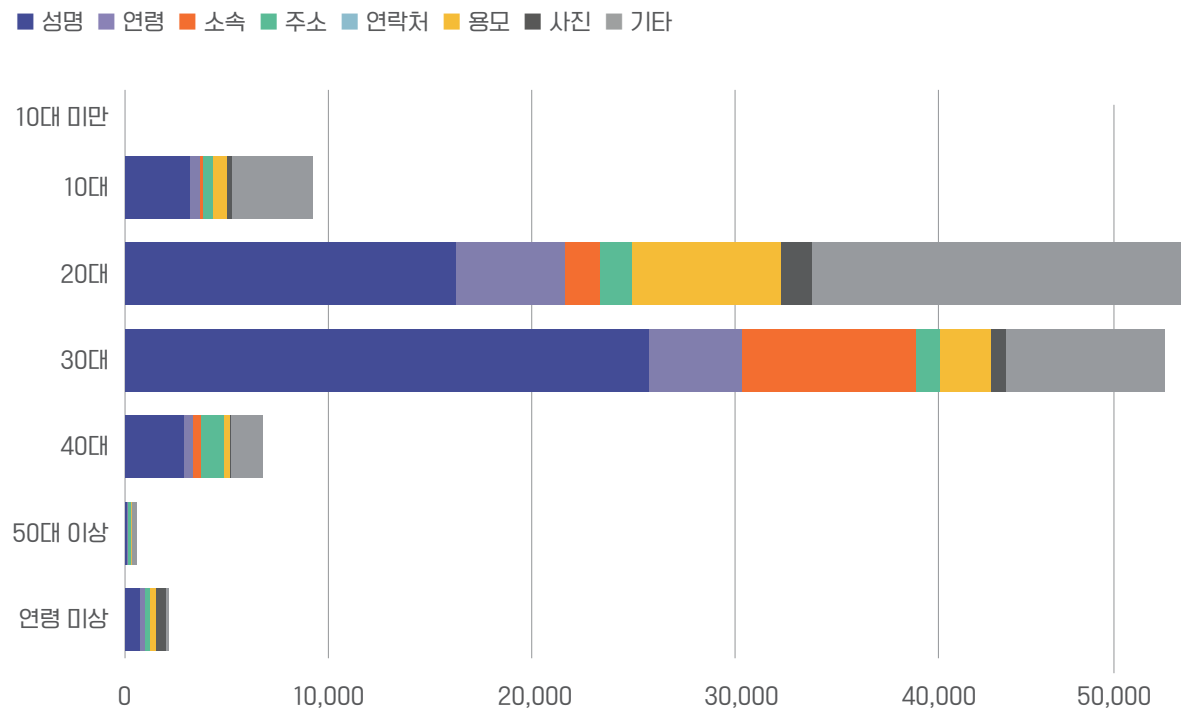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단위: 건 / 개)

구분	신상정보 삭제지원	신상정보 유형(개)								
		합계	성명	연령	소속	주소	연락처	용모	사진	기타
10대 미만	1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0대	7,852 (8.3%)	9,211 (100.0%)	3,147 (34.2%)	535 (5.8%)	107 (1.2%)	519 (5.6%)	0 (0.0%)	676 (7.3%)	262 (2.8%)	3,965 (43.1%)
20대	42,286 (44.8%)	51,765 (100.0%)	16,204 (31.3%)	5,356 (10.4%)	1,719 (3.3%)	1,555 (3.0%)	14 (0.03%)	7,306 (14.1%)	1,507 (2.9%)	18,104 (35.0%)
30대	36,561 (38.7%)	50,959 (100.0%)	25,678 (50.4%)	4,565 (9.0%)	8,496 (16.7%)	1,190 (2.3%)	34 (0.1%)	2,499 (4.9%)	732 (1.4%)	7,765 (15.2%)
40대	5,644 (6.0%)	6,761 (100.0%)	2,859 (42.3%)	445 (6.6%)	418 (6.2%)	1,121 (16.6%)	3 (0.04%)	262 (3.9%)	85 (1.2%)	1,568 (23.2%)
50대 이상	486 (0.5%)	564 (100.0%)	51 (9.0%)	65 (11.5%)	39 (6.9%)	147 (26.1%)	0 (0.0%)	13 (2.3%)	4 (0.7%)	245 (43.5%)
연령미상	1,583 (1.7%)	2,130 (100.0%)	690 (32.4%)	261 (12.3%)	7 (0.3%)	247 (11.6%)	0 (0.0%)	320 (15.0%)	467 (21.9%)	138 (6.5%)
합계	94,413	121,391	48,629	11,227	10,786	4,779	51	11,076	3,058	31,785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의 신상정보 삭제 건수(5,829건)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파악이 어려우므로 연령별 통계에 포함하지 않음

- ✓ 2025년 연령별 신상정보 삭제지원 건수는 **20대가 42,286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36,561건(38.7%), 10대 7,852건(8.3%), 40대 5,644건(6.0%), 연령 미상 1,583건(1.7%), 50대 이상 486건, 10대 미만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신상정보 삭제지원 건수는 **20대와 30대가 83.5%를 차지하여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 신상정보 유형]



- ✓ 유출된 신상정보의 유형을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10대와 20대에서는 피해영상물 자체를 지목하는 유포 키워드(ex. 'OO녀', 'OO커플' 등)가 포함된 '기타'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30대에서는 성명 유포가 50.4%로 가장 높았고, 직업이나 직장명 등 소속 정보 유포가 16.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주소 유포가 각각 16.6%, 26.1%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 ✓ 종합하면, **10대와 20대에서는 피해영상물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인 유포 키워드 중심의 신상정보 유포가 두드러진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피해자의 성명, 소속, 주소 등 피해자의 식별이 직접 가능한 신상정보가 중점적으로 유포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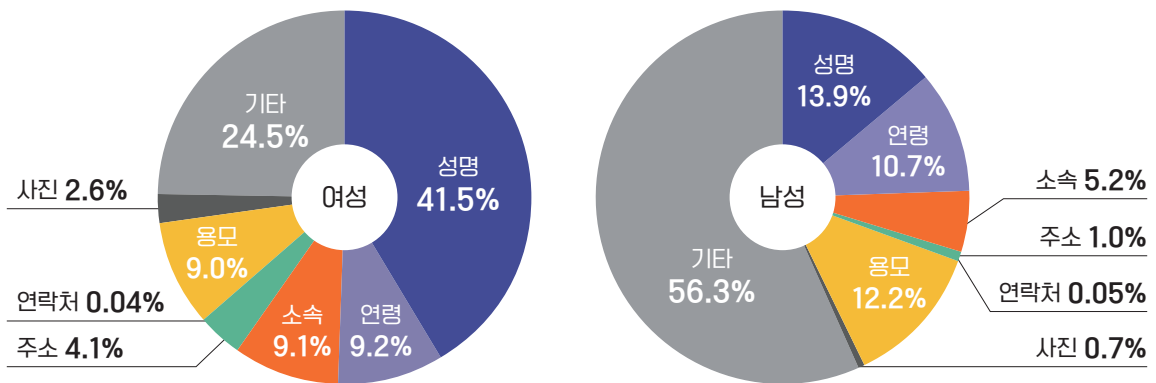
③ 성별 신상정보 삭제지원 현황

1순위 2순위

(단위: 건 / 개)

구분	신상정보 삭제지원	신상정보 유형(개)								
		합계	성명	연령	소속	주소	연락처	용모	사진	기타
여성	89,201 (94.5%)	115,069 (100.0%)	47,751 (41.5%)	10,554 (9.2%)	10,457 (9.1%)	4,719 (4.1%)	48 (0.04%)	10,304 (9.0%)	3,011 (2.6%)	28,225 (24.5%)
남성	5,212 (5.5%)	6,322 (100.0%)	878 (13.9%)	673 (10.7%)	329 (5.2%)	60 (1.0%)	3 (0.05%)	772 (12.2%)	47 (0.7%)	3,560 (56.3%)
합계	94,413	121,391	48,629	11,227	10,786	4,779	51	11,076	3,058	31,785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의 신상정보 삭제 건수(5,829건)는 피해자의 성별 데이터를 별도 수집하지 않으므로 성별 통계에 포함하지 않음



- ✓ 2025년 성별 신상정보 삭제지원 건수는 여성 89,201건, 남성 5,2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를 성별 전체 삭제지원 건수* 대비 비율로 보면, 여성은 34.4%, 남성은 29.6%로 **여성의 신상정보 유포 피해 비중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유출된 신상정보의 유형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은 115,069개, 남성은 6,322개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여성의 경우 직접적인 개인 식별정보인 성명(41.5%), 연령(9.2%), 소속(9.1%), 용모(9.0%)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피해영상을 직접 지칭하는 유포 키워드가 포함된 '기타' 항목 또한 24.5%(28,225개)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 남성의 경우 '기타' 항목이 56.3%(3,56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일한 촬영물의 유포 피해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접수될 경우, '00커플'과 같은 해당 촬영물의 유포 키워드가 신상정보에 해당되어 함께 집계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 성별 전체 삭제지원 건수: 여성 259,554건, 남성 17,610건

다 피해영상물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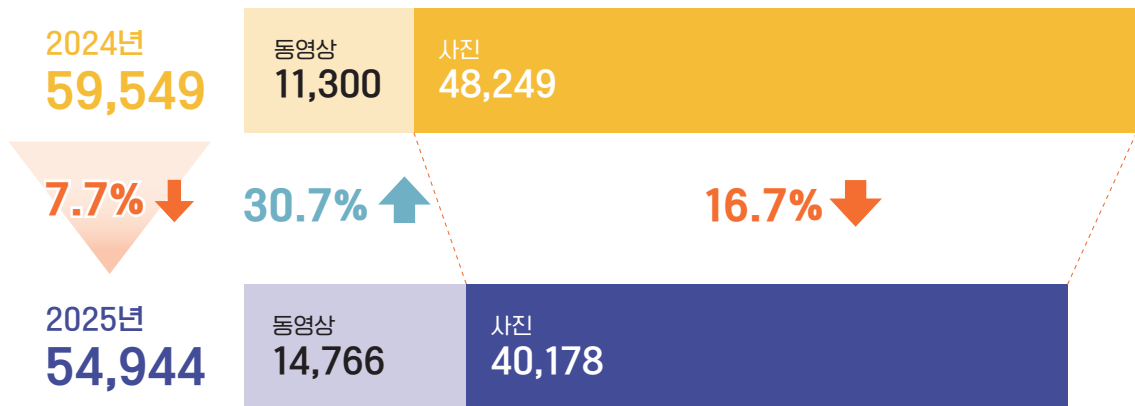
참고

- 피해자가 삭제요청하거나 센터의 삭제지원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하여 확보한 피해영상물에 대하여 해당 피해영상물의 유형별 개수를 집계

(단위: 개)

구분	합계	동영상	사진
2024년	59,549 (100.0%)	11,300 (19.0%)	48,249 (81.0%)
2025년	54,944 (100.0%)	14,766 (26.9%)	40,178 (73.1%)

※ 동일한 피해영상물이 여러 차례 유포될 수 있어, 삭제지원 건수와 피해영상물 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센터는 피해영상물의 원본뿐만 아니라 재유포 과정에서 편집·가공된 피해영상물 또한 모두 확보하여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2025년 센터가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해 확보한 피해영상물은 총 54,944개로, 전년보다 7.7% 감소하였는데, 이 중 동영상은 전년 대비 3,466개 증가(+30.7%)한 반면, 사진은 8,071개 감소(△16.7%)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동영상의 증가와 사진의 감소 현상은 촬영·제작 기술의 발달로 동영상 형태의 피해촬영물 제작이 용이해진 것과 더불어, AI 기술의 고도화로 합성의 양상이 이미지 중심에서 영상으로 확대된 점, 영상통화 등 녹화 기능이 보편화 된 점 등 다양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국외 사이트 대응 현황

가 서버 국가별 수집 사이트(도메인) 수 현황

💡 참고

-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서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서버 국가별로 집계

(단위: 개)

구분	합계	미국	호주	네덜란드	한국	독일	홍콩	프랑스	일본	기타*
사이트 수 (비율)	26,658 (100.0%)	18,875 (70.8%)	1,531 (5.7%)	1,500 (5.6%)	1,226 (4.6%)	763 (2.9%)	559 (2.1%)	377 (1.4%)	317 (1.2%)	1,510 (5.7%)

*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

■ 미국 ■ 호주 ■ 네덜란드 ■ 한국 ■ 독일 ■ 홍콩 ■ 프랑스 ■ 일본 ■ 기타



- ✓ 센터가 개선한 2018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26,658개 사이트의 서버 위치 분석 결과, 미국이 18,875개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으며 이어 호주(5.7%), 네덜란드(5.6%), 한국(4.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 미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 미국 내 도메인 및 서버 운영의 용이성과 ②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의 집중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는 속도 향상 및 네트워크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불법 해외 사이트의 경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 서버의 위치를 은닉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이트의 서버 국가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삭제지원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웹콘텐츠를 전 세계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해두고,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서버에서 빠르게 전달하는 시스템

나 국제협력 삭제지원 현황

참고

- 삭제 불응이 심한 해외 서버에 유포된 피해영상물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삭제지원한 건수로 집계

✓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연방법에 의거 아동 성학대·성착취물 등 신고 시스템인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운영

✓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이자 국제인터넷하라인협회(INHOPE) 하라인 기관

(단위: 건)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미국 NCMEC	7,317	165	6,702	450
영국 IWF	44	-	-	44
합계	7,361	165	6,702	494

- ✓ 센터는 2023년부터 미국 NCMEC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협력하여 미국 서버 기반으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 기반의 삭제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는 전용 계정을 확보해 **삭제지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다만, 2025년부터 대규모 불법 유해사이트의 운영자가 CDN 사업자를 통해 실제 서버지 파악에 혼란을 주는 악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삭제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2025년 말, 센터는 미국 서버 기반 유포 건에 한정된 기존 NCMEC 협력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외 국가 서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과의 협력을 시작하여, **서버지의 국경 제한 없이 국제협력 삭제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전략적으로 확대**했습니다.
- ✓ 2025년 국제협력 삭제지원 건수는 총 494건으로, 절대적인 삭제지원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2024년에 추진된 미국 NCMEC과의 업무협약 체결 당시 대량 유포가 발생했던 시기적 특성과 대규모 유포 사이트의 변동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변화하는 해외서버 기반 피해영상물 유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NCMEC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자료(CSAM)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신고받고, 법 집행 기관에 전달하는 미국의 국가적 신고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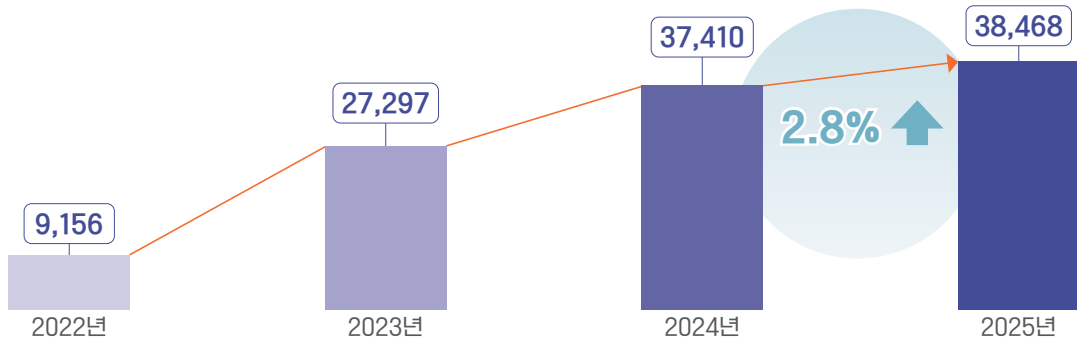
- 삭제 불응에 대응하기 위해 센터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 운영자, 호스팅 사업자 등에게 불법성증명공문을 발송한 건수로 집계

☑ 불법성증명공문

-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이 명백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임을 증명하는 공문으로, 근거법, URL, 사건번호 및 관할 수사기관(수사 개시 사례) 등을 기재하여 운영자에게 발송

(단위: 건)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112,331	9,156	27,297	37,410	38,468



- ✓ 센터는 2022년부터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사업자에게 불법성증명공문을 통지하여 기관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삭제 협조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 ✓ 2025년 불법성증명공문 삭제지원 건수는 38,468건으로 전년 대비 1,058건 증가(+2.8%)했으며 도입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 특히 2025년에는 불법성증명공문을 활용한 삭제지원을 정례화(매월 집중 지원기관 운영)하고 적용 대상 사례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를 중심으로 공문통지를 실시하였으나, 미국의 「Take It Down Act^{*}」 제정(2025.5월) 이후 법률 자문을 통해 2025년 6월부터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공문을 통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아울러, 통지 후 미삭제 게시물에 대해 상습 불법사이트 중점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유관기관(방미심위 등)과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후속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상 기술적 딥페이크 중지를 위한 법률)」(일명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 동의 없는 친밀한 영상(NCII) 및 AI 딥페이크 유포를 형사 처벌하고 플랫폼에 48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한 미국 연방 법률

부록

1. 피해 지원 우수사례
2.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4. 통계자료

1. 피해 지원 우수사례



- 본 사례는 실제 피해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특정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본 사례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디성센터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역디성센터로 표기하였습니다.

1366, 하나의 번호로 피해자 상담-삭제-수사 지원까지 이어지다

[디지털성범죄 전화 상담창구 1366 일원화를 통한 피해 연계 및 지원 사례]

#1. 용기 내어 누른 '1366'

2025년 4월 오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15세, 여)는 국외 SNS 플랫폼에서 만난 가해자로부터 지옥 같은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성착취 피해에 따른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이었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공포였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은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이어졌고, A는 인터넷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검색해 여성긴급전화 1366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유포 차단 골든타임을 지키는 상담전화 호전환 연결

여성긴급전화 1366 B센터 상담원은 A와의 전화 상담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A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적촬영물 유포'였습니다. 1366 B센터는 A의 전화를 지체 없이 중앙디성센터로 연결(호전환)했습니다. 중앙디성센터 상담원은 극심한 불안 상태인 A를 안심시킨 뒤, 유포된 플랫폼과 영상의 종류,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삭제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포 여부 모니터링을 신속하게 시작함으로써 피해영상을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 1366 번호 하나가 이어가는 피해자 보호 지원망

이후 A가 거주지 인근에서 더 세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디성센터로 신속히 연계했습니다. 지역 디성센터 전문 상담원은 A를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A의 피해 사건 수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또한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중앙디성센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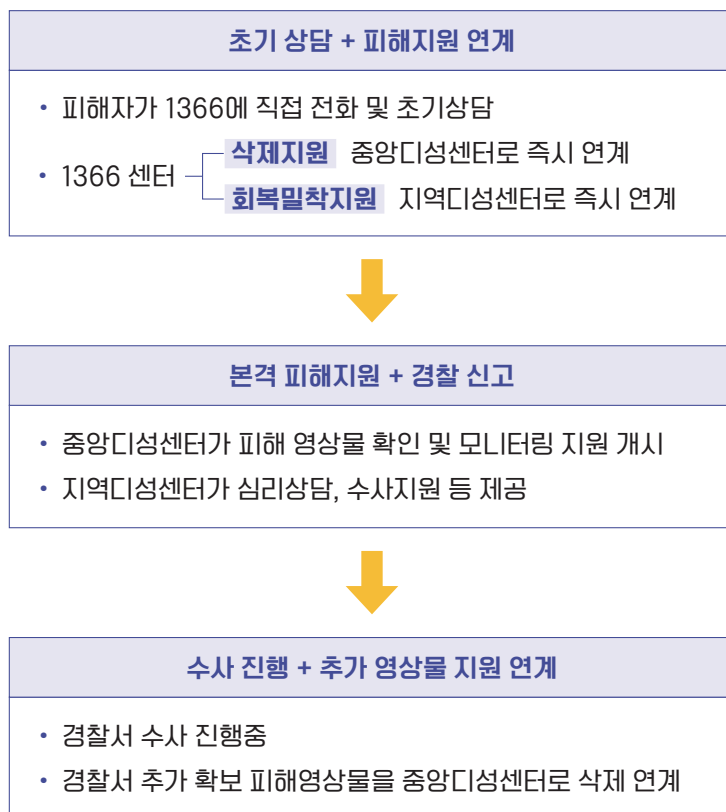
#4. 상담·삭제·수사 지원까지 원스톱(one-stop) 연계

사건은 발생했지만, A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현재 지역디성센터는 A가 겪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 중이며, 중앙디성센터는 피해영상물 삭제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지원을 유지함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의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1366센터(긴급상담)-중앙디성센터(삭제 지원)-지역디성센터(밀착 지원)-경찰(수사)로 이어진 피해자 연계 및 지원 사례로, ‘디지털성범죄 전화 상담창구 1366 일원화’가 한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초기상담부터 수사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집단형 디지털성범죄, 중앙-지역디성센터 공동 대응 모델을 만든다

[중앙-지역 디성센터 집단피해 긴급 대응 사례]

#1. 집단형 디지털성범죄,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다

최근 불법 촬영 및 IP카메라 해킹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집단형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촬영물이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단일 기관 중심의 기존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절실하였습니다.

#2. 중앙-지역디성센터 공동 대응체계 구축

2025년, 중앙디성센터와 5개 지역 디성센터는 최초로 집단형 피해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중앙디성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중앙 및 지역디성센터 6개소 간 핫라인 구축, 피해자 신고 및 지원 절차 표준화, 삭제·심리·의료·법률 지원의 신속 연계,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3. 집단피해 특성 반영, 표준 지원 가이드 마련·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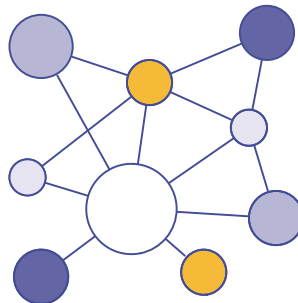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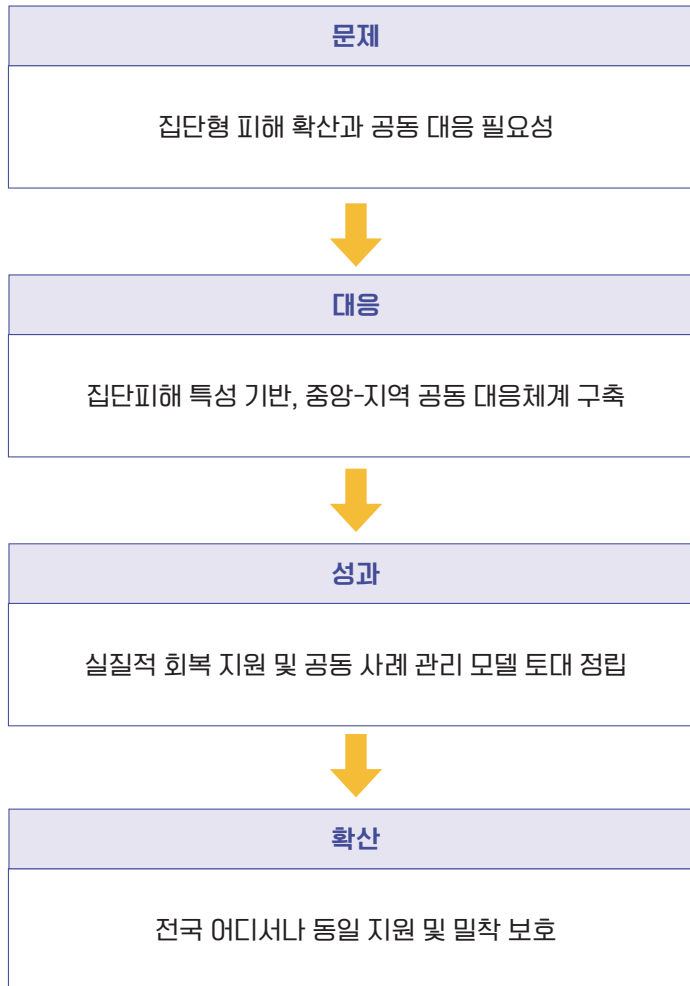
집단형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유포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심리적 위기가 극대화되며, 특히 인지 후 6개월 이내 고위험 상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간 상호 영향이 나타나므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앙디성센터는 기존 연구 자료, 내부 상담 가이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단계별 상담지원 전략과 지원 정보를 담은 집단 피해자 상담 지원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전국 지역 디성센터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 기준으로 전문적이고 균질한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4. 공동 사례 관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모델 도출

공동 대응체계 운영 결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360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디성센터로부터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집단형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선도적 모델로서 공동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디성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표준화된 양질의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집단피해 사건 최초 전국 디성센터 공동 대응체계 운영]



중앙-지역디성센터 협업 지원으로 가해자 양형 강화에 기여하다

[대규모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지원 협업 사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환경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며, 유포 피해가 반복·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삭제지원은 단순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중앙디성센터와 지역디성센터 간 협업을 통해 대량 유포 사건의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양형 판단에 참고자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1. A지역 디성센터, 중앙디성센터에 피해 지원 협업 요청

A지역 디성센터는 한 가해자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불법촬영 및 대량 유포를 자행한 사건에 대해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및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어, 적극적인 신고 및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확인 초반에는 피해자는 5명 이하, 삭제지원 건수는 1,0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과 유포 양상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에 A지역 디성센터는 중앙디성센터에 삭제지원 내역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중앙디성센터 삭제지원 데이터를 제공하여 가해자 양형 강화 견인

중앙디성센터는 내부 논의를 거쳐 A지역 디성센터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삭제지원 내역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내부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축적된 삭제지원 데이터를 확인하고 동일 가해자와 연관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총 10여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삭제지원 건수는 12,000여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디성센터에서 A지역 디성센터로 제공한 삭제지원 내역서는 재판에 제출되었고, 가해자의 최종 양형이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 및 취업제한 7년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중앙디성센터의 삭제지원 데이터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지역디성센터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전달체계의 통합 지원 선례를 도출하였습니다. 셋째, 삭제지원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넘어 가해자의 책임 및 처벌 강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향후에도 축적된 삭제지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디성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10만 건, 법 개정에 따른 기준 마련 및 공표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신상정보 삭제지원' 추진 현황 및 성과

2025년 4월,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신상정보까지 삭제지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성센터가 피해영상물과 별도로 유포된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온라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4.17.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025년 중앙디성센터의 피해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삭제지원의 약 31.5%가 신상정보 유포로 삭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정보의 유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유포된 정보를 활용한 2차·3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디성센터는 법 개정에 맞추어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 및 내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이전에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디성센터뿐 아니라 전국 지역디성센터에 배포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신상정보 삭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신상정보의 유형을 토대로 실제 피해영상물과 함께 유포되는 다양한 신상정보 유형을 수집·분류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유포 키워드(예: 00녀, 00커플)’와 같은 신상정보의 신규 항목(용모, 사진, 기타)을 추가해, 피해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디성센터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한 건수는 총 100,24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77,652건 대비 2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실제로 신상정보 삭제지원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피해영상물 및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이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무 기준과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곁에서 국경을 넘어 지원합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초국가적 네트워크 강화 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해외 플랫폼과 국외 서버를 경유해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피해영상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을 매번 마주합니다. 이에 중앙디성센터는 해외 유관기관·국제기구·각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하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삭제 이행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디성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영국·호주·독일·네덜란드 등 주요국 주한대사관과 총 14회의 간담회와 협업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은 미국 국무부 국제방문자리더십 프로그램^{IVLP} 참여를 계기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내 피해자 지원기관·AI 기술 전문가와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초청 디지털성범죄 대응 웨비나를 공동 개최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와 법·정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를 직접 방문하여 사이버팁라인 시스템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API 연동을 통한 대량 삭제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디성센터의 삭제지원 요청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국제 네트워크가 실무 협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노미넷^{Nominet UK}과의 연구 자문회의를 계기로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과의 삭제지원 협력 채널이 발굴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위한 전용 핫라인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해외 서버에 유포된 피해영상물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실질적 삭제지원 창구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지원의 국제공조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업 역시 중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앙디성센터는 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리소스북」을 발간하고, SDG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이 프로그램 공모를 신청한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이 최종 협력국으로 선정되었으며, 두 나라에서는 2026년부터 한국형 피해자 지원 모델의 현지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아울러 UN Women 지식·파트너십센터의 APEC 공식 부대행사, 국제 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워킹그룹에도 참여해 기술에 기반한 피해자 지원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국제사회와 꾸준히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형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스템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지원 경험의 국제적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여성센터는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국외 불법 사이트와 초국경적 유포 구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피해자 보호가 국경을 넘어 작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조 체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② 서울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⑩ 경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⑤ 인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⑬ 충남

해뜰통합상담소

⑨ 세종

세종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⑦ 대전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⑭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⑥ 광주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⑮ 전남

(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

⑮ 제주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⑪ 강원

원주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⑫ 충북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④ 대구

(사)대구여성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⑮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⑧ 울산

동구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③ 부산

부산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⑮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표 상담전화

1366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① 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d4u.stop.or.kr	02-735-8994
②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8150382.or.kr	02-815-0382
③ 부산	부산여성가족과정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digital.egen.or.kr	051-802-2081
④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피아라	dwhotline.or.kr	053-215-6487
⑤ 인천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onestop5170.kr	032-517-5170
⑥ 광주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복지사업위원회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	gjiywcafc.or.kr	062-672-1582
⑦ 대전	(사)대전YWCA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djiywca.or.kr	042-255-0078
⑧ 울산	(사)성평등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usfemi.or.kr	052-252-8247
⑨ 세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세종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sejonglds.or.kr	044-866-1366
⑩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majubom.kr	1544-9112
⑪ 강원	(사)함께하는공동체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wjdsvc.com	033-765-1366
⑫ 충북	(사)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i-web.kr/cjwomen	043-267-3006
⑬ 충남	(사)우리가족 해돋이통합상담소	woorifamily.net	041-545-8994
⑭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주성폭력상담소	svpcc.net	063-717-1366
⑮ 전남	(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	mokpowomen.or.kr	061-283-4510
⑯ 경북	(사)포항여성회 경북여성통합상담소	phwomen.org	054-282-1470
⑰ 경남	(사)경남여성회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blog.naver.com/gndsc	055-604-4240
⑱ 제주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woman3040.or.kr	064-744-8994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



대표 상담전화 1366



대표 누리집 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앙) 02-735-8994



d4u.stop.or.kr

-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을 통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합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 확보 등 채증 자료에 대한 지원 수행
-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



kocsc.or.kr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하여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심리지원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후속 모니터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지원

소관기관 | 법무부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kcva.or.kr)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수사

소관기관 | 경찰청

-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18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과정] 신고접수 ▶ 접수 문자 수신 ▶ 담당자 배정 ▶ 수사 담당자 연락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피해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요청 시 동성 경찰관에게 조사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사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담원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피해 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술녹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무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합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의료지원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병원 진료 동행 및 심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쉼터(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4. 통계자료



일러두기

☑ 기준일

- 2018년 2018.4.30.~2018.12.31. (8개월)
- 2019년 2019.1.1.~2019.12.31. (12개월)
- 2020년 2020.1.1.~2020.12.31. (12개월)
- 2021년 2021.1.1.~2021.12.31. (12개월)
- 2022년 2022.1.1.~2022.12.31. (12개월)
- 2023년 2023.1.1.~2023.12.31. (12개월)
- 2024년 2024.1.1.~2024.12.31. (12개월)
- 2025년 2025.1.1.~2025.12.31. (12개월)

☑ 지원 피해자 수

-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수
- 2024년 이전부터 지원받은 피해자가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2025년 피해자 인원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 건수

- 해당연도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지원 건수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 건수는 피해자 수보다 많게 나타납니다.

☑ 항목별 세부 통계 작성 기준은 표 아래 각주로 제시하였습니다.

(1) 지원 피해자 현황

가 인입 시기별 지원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신규	지속
2018년	1,315 (100.0%)	1,315 (100.0%)	- (-)
2019년	2,087 (100.0%)	1,567 (75.1%)	520 (24.9%)
2020년	4,973 (100.0%)	4,577 (92.0%)	396 (8.0%)
2021년	6,952 (100.0%)	5,202 (74.8%)	1,750 (25.2%)
2022년	7,979 (100.0%)	5,101 (63.9%)	2,878 (36.1%)
2023년	8,983 (100.0%)	5,707 (63.5%)	3,276 (36.5%)
2024년	10,305 (100.0%)	6,507 (63.1%)	3,798 (36.9%)
2025년	10,637 (100.0%)	5,840 (54.9%)	4,797 (45.1%)

나 최초 상담 경로별 지원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기타*
2018년	1,315 (100.0%)	868 (66.0%)	437 (33.2%)	10 (0.8%)
2019년	2,087 (100.0%)	1,400 (67.1%)	675 (32.3%)	12 (0.6%)
2020년	4,973 (100.0%)	3,555 (71.5%)	1,405 (28.3%)	13 (0.3%)
2021년	6,952 (100.0%)	5,467 (78.6%)	1,441 (20.7%)	44 (0.6%)
2022년	7,979 (100.0%)	6,436 (80.7%)	1,491 (18.7%)	52 (0.6%)
2023년	8,983 (100.0%)	6,710 (74.7%)	2,226 (24.8%)	47 (0.5%)
2024년	10,305 (100.0%)	6,766 (65.6%)	3,502 (34.0%)	37 (0.4%)
2025년	10,637 (100.0%)	6,257 (58.8%)	4,363 (41.0%)	17 (0.2%)

* 전화, 온라인 상담을 제외한 센터방문, 이메일 등 기타 경로로 최초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다 성별·연령별 지원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10대 (10대 미만 포함)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2018년	여성	1,106 (84.1%)	95 (7.2%)	218 (16.6%)	98 (7.5%)	18 (1.4%)	20 (1.5%)	657 (50.0%)
	남성	209 (15.9%)	16 (1.2%)	33 (2.5%)	11 (0.8%)	16 (1.2%)	5 (0.4%)	128 (9.7%)
	소계	1,315 (100.0%)	111 (8.4%)	251 (19.1%)	109 (8.3%)	34 (2.6%)	25 (1.9%)	785 (59.7%)
2019년	여성	1,832 (87.8%)	288 (13.8%)	463 (22.2%)	148 (7.1%)	33 (1.6%)	22 (1.1%)	878 (42.1%)
	남성	255 (12.2%)	33 (1.6%)	41 (2.0%)	19 (0.9%)	17 (0.8%)	10 (0.5%)	135 (6.5%)
	소계	2,087 (100.0%)	321 (15.4%)	504 (24.1%)	167 (8.0%)	50 (2.4%)	32 (1.5%)	1,013 (48.5%)
2020년	여성	4,047 (81.4%)	1,007 (20.2%)	863 (17.4%)	267 (5.4%)	77 (1.5%)	36 (0.7%)	1,797 (36.1%)
	남성	926 (18.6%)	197 (4.0%)	189 (3.8%)	65 (1.3%)	57 (1.1%)	51 (1.0%)	367 (7.4%)
	소계	4,973 (100.0%)	1,204 (24.2%)	1,052 (21.2%)	332 (6.7%)	134 (2.7%)	87 (1.7%)	2,164 (43.5%)
2021년	여성	5,109 (73.5%)	1,194 (17.2%)	1,090 (15.7%)	367 (5.3%)	91 (1.3%)	42 (0.6%)	2,325 (33.4%)
	남성	1,843 (26.5%)	287 (4.1%)	371 (5.3%)	104 (1.5%)	81 (1.2%)	96 (1.4%)	904 (13.0%)
	소계	6,952 (100.0%)	1,481 (21.3%)	1,461 (21.0%)	471 (6.8%)	172 (2.5%)	138 (2.0%)	3,229 (46.4%)
2022년	여성	6,007 (75.3%)	1,211 (15.2%)	1,093 (13.7%)	430 (5.4%)	131 (1.7%)	51 (0.6%)	3,091 (38.7%)
	남성	1,972 (24.7%)	212 (2.6%)	357 (4.5%)	104 (1.3%)	65 (0.8%)	71 (0.9%)	1,163 (14.6%)
	소계	7,979 (100.0%)	1,423 (17.8%)	1,450 (18.2%)	534 (6.7%)	196 (2.5%)	122 (1.5%)	4,254 (53.3%)
2023년	여성	6,663 (74.2%)	1,848 (20.6%)	3,128 (34.8%)	788 (8.8%)	235 (2.6%)	89 (1.0%)	575 (6.4%)
	남성	2,320 (25.8%)	361 (4.0%)	1,389 (15.5%)	280 (3.1%)	131 (1.4%)	135 (1.5%)	24 (0.3%)
	소계	8,983 (100.0%)	2,209 (24.6%)	4,517 (50.3%)	1,068 (11.9%)	366 (4.0%)	224 (2.5%)	599 (6.7%)

(단위: 명)

구분		합계	10대 (10대 미만 포함)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연령 미상*
2024년	여성	7,428 (72.1%)	2,478 (24.0%)	3,326 (32.3%)	1,048 (10.2%)	326 (3.2%)	115 (1.1%)	135 (1.3%)
	남성	2,877 (27.9%)	396 (3.9%)	1,916 (18.6%)	283 (2.7%)	128 (1.2%)	146 (1.4%)	8 (0.1%)
	소계	10,305 (100.0%)	2,874 (27.9%)	5,242 (50.9%)	1,331 (12.9%)	454 (4.4%)	261 (2.5%)	143 (1.4%)
2025년	여성	8,019 (75.4%)	2,612 (24.6%)	3,577 (33.6%)	1,225 (11.5%)	333 (3.1%)	134 (1.3%)	138 (1.3%)
	남성	2,618 (24.6%)	440 (4.1%)	1,649 (15.5%)	264 (2.5%)	119 (1.1%)	135 (1.3%)	11 (0.1%)
	소계	10,637 (100.0%)	3,052 (28.7%)	5,226 (49.1%)	1,489 (14.0%)	452 (4.2%)	269 (2.6%)	149 (1.4%)

* 연령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의 연령은 피해 발생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집계함

※ 최초 인입한 연도를 초과하여 지원이 지속된 경우 중복 집계함

라 피해영상을 확보 여부에 따른 지원유형별 지원 피해자 현황

- ☒ 센터에서 삭제지원 가능한 영상물의 확보 및 유포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를 집계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원 피해자 수	피해영상을 확보			피해영상을 미확보
		합계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피해영상을물 삭제지원	상담 및 연계 지원
2018년	1,315 (100.0%)	241 (18.3%)	- (0.0%)	241 (18.3%)	1,074 (81.7%)
2019년	2,087 (100.0%)	525 (25.2%)	66 (3.2%)	459 (22.0%)	1,562 (74.9%)
2020년	4,973 (100.0%)	1,808 (36.4%)	967 (19.5%)	841 (16.9%)	3,165 (63.6%)
2021년	6,952 (100.0%)	2,789 (40.1%)	1,761 (25.3%)	1,028 (14.8%)	4,163 (59.9%)
2022년	7,979 (100.0%)	3,910 (49.0%)	2,646 (33.2%)	1,264 (15.8%)	4,069 (51.0%)
2023년	8,983 (100.0%)	4,780 (53.2%)	3,178 (35.4%)	1,602 (17.8%)	4,203 (46.8%)
2024년	10,305 (100.0%)	6,086 (59.1%)	4,365 (42.4%)	1,721 (16.7%)	4,219 (40.9%)
2025년	10,637 (100.0%)	6,115 (57.5%)	4,124 (38.8%)	1,991* (18.7%)	4,522 (42.5%)

* 인입 단계 유포 확인: 1,508명(75.7%)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후 유포 확인: 483명(24.3%)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 피해영상을 원본이 확보되어 유포 여부 파악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진행 후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수로 집계

피해영상을물 삭제지원

- 확보된 피해영상을 원본·URL의 유포가 확인되어 삭제지원을 제공받은 인원수로 집계

상담 및 연계 지원

- 피해영상을 원본·URL이 확보되지 않아 상담 또는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를 단독으로 지원받은 인원수로 집계

마 피해영상물 인지 경로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직접인지	타인인지	인지 경로 미상*
2018년	241 (100.0%)	74 (30.7%)	103 (42.7%)	64 (26.6%)
2019년	525 (100.0%)	200 (38.1%)	187 (35.6%)	138 (26.3%)
2020년	1,808 (100.0%)	477 (26.4%)	817 (45.2%)	514 (28.4%)
2021년	2,789 (100.0%)	964 (34.6%)	560 (20.1%)	1,265 (45.4%)
2022년	3,910 (100.0%)	1,322 (33.8%)	767 (19.6%)	1,821 (46.6%)
2023년	4,780 (100.0%)	1,975 (41.3%)	1,633 (34.2%)	1,172 (24.5%)
2024년	6,086 (100.0%)	2,079 (34.1%)	3,059 (50.3%)	948 (15.6%)
2025년	6,115 (100.0%)	1,862 (30.4%)	2,904 (47.5%)	1,349 (22.1%)

* 피해자가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히지 않는 경우 등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모니터링 지원받은 피해자의 피해 인지 경로

바 피해자-가해자 관계별 지원 피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가해자 특정 불가
2018년	1,315 (100.0%)	198 (15.1%)	169 (12.9%)	309 (23.5%)	136 (10.3%)	5 (0.4%)	498 (37.9%)
2019년	2,087 (100.0%)	331 (15.9%)	373 (17.9%)	500 (24.0%)	227 (10.9%)	5 (0.2%)	651 (31.2%)
2020년	4,973 (100.0%)	1,239 (24.9%)	280 (5.6%)	429 (8.6%)	227 (4.6%)	15 (0.3%)	2,783 (56.0%)
2021년	6,952 (100.0%)	1,963 (28.2%)	548 (7.9%)	539 (7.8%)	290 (4.2%)	17 (0.2%)	3,595 (51.7%)
2022년	7,979 (100.0%)	2,295 (28.8%)	730 (9.1%)	603 (7.6%)	481 (6.0%)	17 (0.2%)	3,853 (48.3%)
2023년	8,983 (100.0%)	3,391 (37.8%)	1,868 (20.8%)	870 (9.7%)	766 (8.5%)	29 (0.3%)	2,059 (22.9%)
2024년	10,305 (100.0%)	2,977 (28.9%)	2,727 (26.5%)	1,002 (9.7%)	1,032 (10.0%)	18 (0.2%)	2,549 (24.7%)
2025년	10,637 (100.0%)	3,022 (28.4%)	2,108 (19.8%)	1,301 (12.3%)	1,094 (10.3%)	24 (0.2%)	3,088 (29.0%)

(2) 피해유형별 피해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18년	2,289 (100.0%)	656 (28.7%)	69 (3.0%)	758 (33.1%)	208 (9.1%)	216 (9.4%)	108 (4.7%)	274 (12.0%)
2019년	4,114 (100.0%)	1,043 (25.4%)	144 (3.5%)	1,213 (29.5%)	354 (8.6%)	557 (13.5%)	273 (6.6%)	530 (12.9%)
2020년	6,983 (100.0%)	2,239 (32.1%)	349 (5.0%)	1,586 (22.7%)	967 (13.8%)	1,050 (15.0%)	306 (4.4%)	486 (7.0%)
2021년	10,353 (100.0%)	2,228 (21.5%)	176 (1.7%)	2,103 (20.3%)	1,939 (18.7%)	2,660 (25.7%)	533 (5.1%)	714 (6.9%)
2022년	12,727 (100.0%)	2,684 (21.1%)	212 (1.7%)	2,481 (19.5%)	2,284 (18.0%)	3,836 (30.1%)	534 (4.2%)	696 (5.4%)
2023년	14,565 (100.0%)	2,927 (20.1%)	423 (2.9%)	2,717 (18.7%)	2,664 (18.3%)	4,566 (31.3%)	500 (3.4%)	768 (5.3%)
2024년	16,833 (100.0%)	4,182 (24.9%)	1,384 (8.2%)	2,890 (17.2%)	2,244 (13.3%)	4,358 (25.9%)	354 (2.1%)	1,421 (8.4%)
2025년	17,629 (100.0%)	3,856 (21.9%)	1,616 (9.2%)	3,113 (17.7%)	2,154 (12.2%)	4,884 (27.7%)	448 (2.5%)	1,558 (8.8%)

* SNS 해킹, 사칭 등 피해 지원 범위 비해당 유형

※ 1명의 피해자가 동일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한 경우 1건으로 간주하고, 피해 유형이 다를 경우 각 1건씩 중복 집계

(3) 지원 현황

가 피해 지원 실적 총괄 현황

(단위: 명, 건)

구분	지원 피해자 수 (명)	지원 건수 (건)				
		합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2018년	1,315	33,921 (100.0%)	28,879 (85.1%)	4,787 (14.1%)	203 (0.6%)	52 (0.2%)
2019년	2,087	101,378 (100.0%)	95,083 (93.8%)	5,735 (5.7%)	500 (0.5%)	60 (0.1%)
2020년	4,973	170,697 (100.0%)	158,760 (93.0%)	11,452 (6.7%)	445 (0.3%)	40 (0.02%)
2021년	6,952	188,083 (100.0%)	169,820 (90.3%)	17,456 (9.3%)	708 (0.4%)	99 (0.1%)
2022년	7,979	234,560 (100.0%)	213,602 (91.1%)	19,259 (8.2%)	1,525 (0.6%)	174 (0.1%)
2023년	8,983	275,520 (100.0%)	245,416 (89.1%)	28,082 (10.2%)	1,819 (0.6%)	203 (0.1%)
2024년	10,305	332,341 (100.0%)	300,237 (90.3%)	28,173 (8.5%)	3,826 (1.2%)	105 (0.03%)
2025년	10,637	352,103 (100.0%)	318,020 (90.3%)	31,591 (9.0%)	2,387 (0.7%)	105 (0.03%)

나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불법 유해사이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타*
2018년	28,879 (100.0%)	8,239 (28.5%)	6,705 (23.2%)	10,312 (35.7%)	848 (2.9%)	-	-	2,775 (9.7%)
2019년	95,083 (100.0%)	26,170 (27.5%)	31,369 (33.0%)	4,337 (4.6%)	2,042 (2.1%)	424 (0.4%)	442 (0.5%)	30,299 (31.9%)
2020년	158,760 (100.0%)	38,332 (24.1%)	25,383 (16.0%)	65,894 (41.5%)	14,550 (9.2%)	796 (0.5%)	1,522 (1.0%)	12,283 (7.7%)
2021년	169,820 (100.0%)	59,113 (34.8%)	30,372 (17.9%)	31,980 (18.8%)	29,608 (17.4%)	3,717 (2.2%)	1,301 (0.8%)	13,729 (8.1%)
2022년	213,602 (100.0%)	95,485 (44.7%)	37,025 (17.3%)	31,053 (14.5%)	28,111 (13.2%)	6,427 (3.0%)	2,519 (1.2%)	12,982 (6.1%)
2023년	245,416 (100.0%)	114,672 (46.7%)	73,245 (29.9%)	35,599 (14.5%)	12,601 (5.1%)	5,070 (2.1%)	2,045 (0.8%)	2,184 (0.9%)
2024년	300,237 (100.0%)	129,268 (43.0%)	117,029 (39.0%)	32,168 (10.7%)	9,053 (3.0%)	9,824 (3.3%)	1,697 (0.6%)	1,198 (0.4%)
2025년	318,020 (100.0%)	163,996 (51.6%)	80,359 (25.3%)	43,033 (13.5%)	11,555 (3.6%)	12,919 (4.0%)	3,073 (1.0%)	3,085 (1.0%)

* 웹하드, P2P, 블로그, 아카이브 등

다 지원근거별 삭제지원 현황

☑ 센터에서 삭제지원한 건수를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각 지원근거 조항별로 구분하여 집계

(단위: 건)

구분	합계	피해자 등 요청 (제1항 및 제2항)	선제적 삭제지원	
			수사기관 요청 (제3항제1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3항제2호)
2021년	169,820 (100.0%)	123,138 (72.5%)	13,245 (7.8%)	33,437 (19.7%)
2022년	213,602 (100.0%)	164,883 (77.2%)	13,859 (6.5%)	34,860 (16.3%)
2023년	245,416 (100.0%)	192,424 (78.4%)	17,267 (7.0%)	35,725 (14.6%)
2024년	300,237 (100.0%)	244,457 (81.4%)	18,131 (6.0%)	37,649 (12.6%)
2025년	318,020 (100.0%)	257,257 (80.9%)	19,907 (6.3%)	40,856 (12.8%)

라 신상정보 삭제지원 현황

(단위: 건 / 개)

구분	전체 삭제지원	신상정보 삭제지원	신상정보 유형(개)								
			합계*	성명	연령	소속	주소	연락처	용모	사진	기타
2018년	28,879 (100.0%)	5,935 (20.6%)	6,700 (100.0%)	4,793 (71.5%)	546 (8.1%)	533 (8.0%)	622 (9.3%)	206 (3.1%)	-	-	-
2019년	95,083 (100.0%)	17,427 (18.3%)	22,437 (100.0%)	16,595 (74.0%)	2,203 (9.8%)	2,773 (12.4%)	820 (3.7%)	46 (0.2%)	-	-	-
2020년	158,760 (100.0%)	24,962 (15.7%)	37,800 (100.0%)	20,873 (55.2%)	8,991 (23.8%)	2,525 (6.7%)	5,237 (13.9%)	174 (0.5%)	-	-	-
2021년	169,820 (100.0%)	25,432 (15.0%)	27,047 (100.0%)	12,803 (47.3%)	7,058 (26.1%)	4,794 (17.7%)	2,375 (8.8%)	17 (0.1%)	-	-	-
2022년	213,602 (100.0%)	39,298 (18.4%)	48,926 (100.0%)	19,322 (39.5%)	24,445 (50.0%)	4,213 (8.6%)	895 (1.8%)	51 (0.1%)	-	-	-
2023년	245,416 (100.0%)	57,082 (23.3%)	73,949 (100.0%)	30,458 (41.2%)	29,341 (39.7%)	10,611 (14.3%)	3,517 (4.8%)	22 (0.03%)	-	-	-
2024년	300,237 (100.0%)	77,652 (25.9%)	98,101 (100.0%)	54,888 (55.9%)	28,521 (29.1%)	10,083 (10.3%)	4,292 (4.4%)	317 (0.3%)	-	-	-
2025년	318,020 (100.0%)	100,242 (31.5%)	128,311 (100.0%)	49,130 (38.3%)	13,314 (10.4%)	10,789 (8.4%)	5,593 (4.4%)	51 (0.04%)	11,265 (8.8%)	3,264 (2.5%)	34,905 (27.2%)

* 삭제지원한 게시물별 신상정보 유형 내역 중복 집계

※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해영상물과 동반 유포되거나 단독으로 유포되었을 경우 삭제지원한 건수로, 신상정보 단독 유포 삭제지원은 2025년부터 진행됨

마 피해영상물 유형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동영상	사진
2018년	3,849 (100.0%)	808 (21.0%)	3,041 (79.0%)
2019년	13,004 (100.0%)	1,699 (13.1%)	11,305 (86.9%)
2020년	48,958 (100.0%)	5,234 (10.7%)	43,724 (89.3%)
2021년	41,830 (100.0%)	6,524 (15.6%)	35,306 (84.4%)
2022년	35,467 (100.0%)	10,281 (29.0%)	25,186 (71.0%)
2023년	45,107 (100.0%)	11,407 (25.3%)	33,700 (74.7%)
2024년	59,549 (100.0%)	11,300 (19.0%)	48,249 (81.0%)
2025년	54,944 (100.0%)	14,766 (26.9%)	40,178 (73.1%)

※ 동일한 피해영상물이 여러 차례 유포될 수 있어, 삭제지원 건수와 피해영상물 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국외 사이트 대응 현황

가 서버 국가별 수집 사이트(도메인) 수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미국	호주	네덜란드	한국	독일	홍콩	프랑스	일본	기타*
2024년	26,318 (100.0%)	18,535 (70.4%)	1,548 (5.9%)	1,496 (5.7%)	1,223 (4.6%)	766 (2.9%)	554 (2.1%)	373 (1.4%)	309 (1.2%)	1,514 (5.8%)
2025년	26,658 (100.0%)	18,875 (70.8%)	1,531 (5.7%)	1,500 (5.6%)	1,226 (4.6%)	763 (2.9%)	559 (2.1%)	377 (1.4%)	317 (1.2%)	1,510 (5.7%)

*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

※ 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서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각 서버 국가별로 집계
(단, 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서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함)

나 국제협력 삭제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미국 NCMEC	7,317	165	6,702	450
영국 IWF	44	-	-	44
합계	7,361	165	6,702	494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연방법에 의거 아동 성학대·성착취물 등 신고 시스템인 '사이버 토플라인(CyberTipline)' 운영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기관이자 국제인터넷하라인협회(INHOPE) 핫라인 기관

다 불법성증명공문 삭제지원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112,331	9,156	27,297	37,410	38,468

※ 삭제 불응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유해사이트 운영자, 호스팅 사업자 등에게 피해영상물임을 증명하는 공문(근거법, 사건번호, URL 등 기재)을 발송한 건수로 집계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피해상황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접수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365일)

대표번호 **136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통)

02-735-8994



온라인 상담

디지털성범죄STOP
d4u.stop.or.kr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미리 확보해두시면 보다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가 유포된 사이트 게시물 등의 구체적인 URL 주소
-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관련 영상·사진 **[캡처본 불가]**
※ 단, 캡처본 자체가 유포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
- ✓ 유포 키워드(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를 특정하는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 검색 가능한 정보)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행인	신보라
발행일	2026년 4월
발행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소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연락처	T. 02-735-1050 F. 02-6363-8493
홈페이지	www.stop.or.kr
등록번호	여성인권-결과보고-2026-001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설립된 성평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